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임기 마친 패트릭, 론 워크

한인사회와 친했던
최초 흑인 주지사
“결실 맺었던 8년 임기
뿌듯하다”



드별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7일 론 워크를 이행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8년의 임기를 마친 드별 패트릭 전 주지사가 의사당 정문을 통과하며 전통 관례인 ‘론 워크’를 이행했다.

지난 7일 수요일 저녁, 기록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약 4백여명의 관중들이 주지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모였다. 찰리 베이커 부부와 그의 개인 미팅을 마치고 나온 드별 패트릭이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의사당 복도를 걸어나오는 모습이 의사당 밖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잡혔다. 마침내 의사당 밖으로 나온 주지사의 모습에 추위를 잊은 듯한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19발의 총성과 함께 패트릭 전 주

지사는 의사당 계단을 내려오며 함께 임기를 보냈던 이들에게 악수와 진한 포옹으로 작별을 고했다. 부인 다이앤과 함께 차에 오르자 관중 속 한 여성은 “사랑합니다! 보고싶을 겁니다”라고 외쳤다. 짧은 순간을 위해 1시간 이상 추위 속에서 기다린 관중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를 떠나보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전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훌륭한 임기였다

며 지난 8년을 회고했다. “결실을 맺었던 8년이였으며 그 간의 기록들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한 그는 8일 따뜻한 날씨로 긴 여행을 떠나며 2010년 주지사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찰리 베이커에게 주지사 자리를 넘겨주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전통의 론 워크(Lone Walk)는 현 주지사가 임기를

▶▶3면으로 계속

뉴스타 보스톤 지사 전국 매출 1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스타 보스톤지사(대표 백영주)가 2014년도 미전국 지점 부동산 매출 1위를 달성해 지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뉴스타 보스톤지사는 그동안 3년 연속 2위를 지켜오며 1위를 호시탐탐 넘보다 지난해 그동안 줄곧 1위를 달랠왔던 하와이 지점을 꺾고 1위를 달성했다. 지난 12월 18일 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타 부동산 연말 송년 모임에서 남문기 회장은 백영주 대표에게 최우수 전

국지점상 1위 상패를 수여했다.

백영주 대표는 “시에틀이나 하와이에 쉬운 1등을 보스톤은 정말 어렵게 이뤘다”고 소회했다. 백대표는 또 “그동안 잘 믿고 따라준 직원들께 감사한다.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지사를 만들어 내년 에도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또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주신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금도 저를 위해 새벽기도를 해주시는 어머니에게

▶▶2면으로 계속



지난 12월 18일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타 부동산 송년회에서 남문기 회장은 백영주 보스톤 지사장에게 전국 지점 1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Since 1970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뉴스타 지사 2015년 시무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스타 보스톤 지사(대표 백영주)는 8일 렉싱턴 소재 류이 레스토랑에서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뉴스타 부동산 올해 미주 전체 1위를 차지한 보스톤 지사 백영주 대표는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를 결산해 우수 사원을 표창했다. 지사 1위 에이전트 에이슨 전 씨를, 우수 에이전트로 애나 정, 신보경 씨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올해의 루키 상에 지나 최 씨를 선정해 수여했다. 이어 LA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한 에이전트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백영주 뉴스타 보스톤지사 대표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을 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한동안 불황을 겪었지만 저희 뉴스타 지사장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호황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 의견이 많았다" 고 말했다.

백대표는 "1등을 일궈낸 이유에는 직원분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목한 가정없는 직장에서의 성공도 없다고 생각한다. 에이전트 모두가 좋은 엄마, 아내, 남편, 삼촌 등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 1등을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뉴스타 부동산 보스톤 지사 전체 직원들이 지난 8일 저녁 렉싱턴 소재 류이 레스토랑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전국 1위 상패와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9일 시무식에서 우수 에이전트 상을 수상받은 애나 정씨(우)와 신보경 씨(좌). 이들은 전국 개인 공동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백영주 대표는 남문기 회장의 권고로 올해 최연소 2년 연속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한 제이슨 전을 보스톤 지사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백영주 대표는 "내년 목표는 1등이다. 또 일등을 일궈내자" 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 부동산 보스톤 지사는 뉴스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올해는 템스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혜진 양에게 1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editor@bostonkorea.com

제이슨 전 씨 2년 연속 최연소 뉴스타 매출왕

▶▶1면에 이어서

정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뉴스타는 매년 연말 LA 15개 지점을 별도로 수상하고 그 외 19개 지점을 통틀어 전국 1위 지사를 수상하고 있다. 뉴스타 보스톤지사가 전국 1위로 우뚝 선 것은 그만큼 뉴스타 부동산 직원들의 활약도 좋았다는 의미다. 보스톤지사에서 모두 5명의 에이전트들이 전국 1, 공동 2위, 공동 3위 등을 차지하며 개인상 및 단체상을 씩씩이 했다.

제이슨 전 씨(36)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주 뉴스타부동산 매출왕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연소 매출왕이란 기록을 올렸다. 제이슨 전이 지난 한해 올린 소득(커미션)은 50만 8천불. 이외에도 애

나 정씨가 38만 7천불을 올려 29만 8천불의 소득을 올린 신보경씨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김광오 부사장과 지나 최 씨가 공동 3위를 차지해 뉴스타 보스톤지사의 날이 됐다.

LA에서 열린 뉴스타 부동산 송년 모임 시상식에는 백영주 대표가 모친과 함께 참석했고, 제이슨 전 씨는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제이슨 전씨는 "무엇보다 늘 뒤에서 가르쳐주고 지원해주시는 백영주 대표 덕분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다" 고 말하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지난 12월 18일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타 부동산 송년회에서 남문기 회장이 제이슨 전 씨에게 전국 매출왕 상을 수상하고 있다. 전 씨는 최연소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펴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스타 사기전화 정초 한인업소 집중 공략

한인업소 대상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엔스타 사칭 “전기 요금
1시간 내로 결제해야 한다”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인 엔스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엔스타(NSTAR)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은 분명한 사기 행위”라며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한국가든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엔스타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다짜고짜 \$800 가량의 전기 요금을 한 시간 내로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3주전 결제를 마친 한국가든의 사장 신 씨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자 “컴퓨터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결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터무니 없는 금액과 정확하지 않은 계정 정보에 불신을 가진 신 씨는 두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와 같은 사기 전화를 받은 것은 한국가든만의 경우가 아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또 다른 한인 업소를 운영

하는 이 씨는 사기 행위에 속아 이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엉터리 어카운트 정보를 들이대며 전기 요금을 결제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정초 한인 업소들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617-391-8416)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고 약간의 액센트가 있는 영어로 “엔스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담당자가 바쁜 관계로 용건이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충분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음파일이었다.

이에 관해 엔스타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며 “엔스타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는 분명한 사기 행위”라고 전했다. 수 개월 전 엔스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건이 여러 번 접수된 적이 있지만 최근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기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속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 엔스타의 결제 정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콜센터(800-592-2000)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8년의 임기를 마친 드별 패트릭 전 주지사

새로운 주지사 찰리 베이커에게 이목 집중

▶▶1면에 이어서
마치며 다음 주지사에게 사무실 열쇠와 성경 등을 전달하고 의사당 정문을 통해 떠나는 기념식이 다. 1884년 주지사였던 벤자민 버틀러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 홀로 이 문을 걸어내려왔다고 전한다. 이 후 주지사의 의사당 정문은 미국 대통령 혹은 외국 대통령의 방문과 주지사 이임식에만 열린다.

한편,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기대가 되지만 긴장도 된다”며 임기를 앞둔 심정을 밝혔다. 드별 패트릭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다양한 교통, 교육, 다민족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 나갈지, 특별히 한인사회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전 주지사를 이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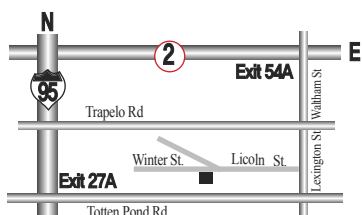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학자금 보조 신청 빠른수록 유리

2월 말까지는 접수해야
보조 금액 확보
세금보고 전 접수 가능,
추정치 소득 기재 후
업데이트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연방 정부의 학자금 보조 (FAFSA)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되었다. 세금 보고를 마칠 때까지 접수를 미루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기지론 대출담당관 에이저 리 씨는 “2월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보조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5월 신청 마감이라고는 하지만 1월말이나 2월내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로 이로 인해 학자금 보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4월 15일은 어디까지나 마감일 일 뿐 그전에 충분히 세금 보고가 가

능하다.

보스톤의 많은 학교들은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이 2월 15일로 빠르다. 보스톤 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 MIT의 경우 2월 15일까지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는 마감일이 1월말인 학교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지원하는 학교의 재정보조 관련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세금보고를 하기도 전에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소득란의 “Filed”와 “Will File”, “Will not File” 중 “Will File”을 선택하고 추정치 소득을 기재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마친 후에는 “Filed”로 변경한 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일 경우에도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을 수록 더 큰

액수의 학자금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시스템은 영주권자 이상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신청 전 반드시 미리 해야하는 것이 핀(PIN)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는 학생의 고유번호로 온라인 신청 시 서명을 대신한다. 핀 신청은 교육부 웹사이트(www.pin.ed.gov)에서 할 수 있으며 하루 정도면 이메일로 발송된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재정 보조 패키지에는 학자금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와 각종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1040 Form)이나 W-2 양식, 은행 명세서, 증권 혹은 채권에 대한 기록 등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2024올림픽 미국 개최 후보지로 보스톤 선정

파리, 로마, 부다페스트 등 세계 도시와 경쟁

표했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보스톤이 미국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어 영광이다. 이는 보스톤의 가능성과 다양성,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한 결정이었다고 믿는다”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의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 미국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USOC)는 지난 8일 목요일 덴버국제공항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후 미국 개최 후보지로 보스톤을 선정했다고 발

보스톤은 이제 2024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를 놓고 파리, 로마, 부다페스트, 이스탄불, 도하 등의 세계 도시와 겨루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2017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선정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벌링톤 AMC 상영거부로 <국제시장> 개봉 연기

기획사 측 “일방적 개봉 취소 통보”

우번 상영관으로 재조정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AMC 벌링톤 지점이 상영을 거부함에 따라 9일 예정이었던 한국영화 <국제시장>의 개봉이 잠정 연기됐다. 상영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의 지니 초 마케팅 매니저는 “극장 측에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며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영하고 있는 다른 영화들이 성적이 너무 좋아 한국영화를 받아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며 “한달 전 이미 상영키로 합의가 된 극장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전했다.

실제로 보스톤코리아는 벌링톤 극장 매니저 코리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국제시장(Ode to My Father)이란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우리 극장에서는 그 영화를 상

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배급사 측에 전해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들었다.

배급사 측은 현재 쇼케이스 우번(Showcase Woburn)으로 재부킹을 추진하고 있다. 지니 초 매니저는 <국제시장>의 보스톤 개봉을 16일로 한 주 늦추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최대한 빨리 확답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에 차질이 없게 노력하겠다. 개봉에 임박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벤트 티켓은 보스톤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지만 상영관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벤트 당첨자 발표 또한 잠정 연기된다. 상영관이 확정되는 대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2014년도 세금보고 20일부터 시작

오바마케어 시행 후 첫 세금보고, 건강보험 관련 벌금 인상 주의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2014년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년과 같다.

연방국세청(IRS)은 접수 마감일까지 총 1억 5천만 건에 해당하는 세금보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며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환급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 21일 내에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지난 세금보고 시즌 IRS에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의 절대다수는 온라인 보고이며 일인당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31로 조사됐다.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텍스 아이디(PTIN)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IRS에서 발급받거나 새로 갱신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연방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절세를 위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새롭게 규정된 세법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은 2015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기간에 적용되니 미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작년에는 가구 소득의 1% 혹은 구성원당 \$95 중 더 많은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었지만 올해는 가구 소득의 2% 혹은 구성원당 \$325로 대폭 인상되었다.

기본 공제 또한 새롭게 규정된다. 2015년 세금보고 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200에서 \$6,300,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2,400에서 \$12,600, 가장인 경우 \$9,100에서 \$9,250로 각각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인상된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50에서 \$4,000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 연 소득 \$38,750, 부부 연 소득 \$432,400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올해부터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은 \$3,304에서 \$3,359로, 두 명을 둔 가정은 \$5,460에서 \$5,548로, 3명 이상의 가정은 \$6,143에서 \$6,242로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17세 이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 당 \$1,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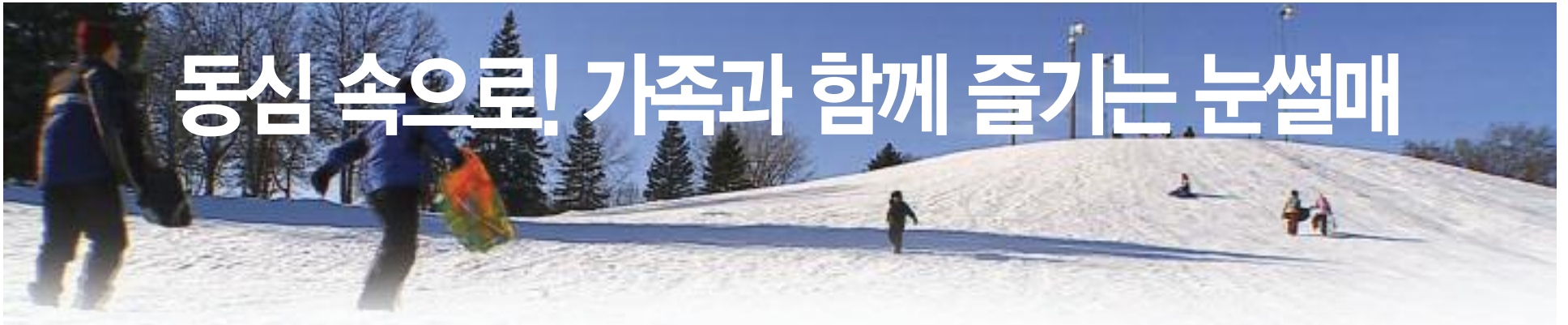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동심 속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눈썰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드디어 보스톤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흰 눈이 소복히 쌓이면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들뜨기 마련. 올 겨울 동심을 자극할 눈썰매, 가족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어떨까.

눈썰매는 스키나 스노우보드와 달리 비싸고 보관하기 번거로운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플라스틱 썰매는 타겟(Target)이나 디스(Dicks), 로우스(Lowe's)에서 \$10선에서 \$60까지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컵받침처럼 생긴 소서(saucer)나 튜빙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무 튜브 등을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썰매는 동네 공원이나 골프장 등 경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다. 스키장은 마음 먹고 작정해야 갈 수 있지만 눈썰매는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한나절을 즐길 수 있어 여러모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겠다. 보스톤 인근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

▶라츠 앤더슨 공원(Larz Anderson Park)

15 New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617-522-6547

브룩라인에 위치한 라츠 앤더슨 공원은 보스톤에서 눈썰매를 타기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다. 크고 작은 언덕이 있어 다양한 높이에서 썰매를 즐길 수 있다. 시청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탁이나 장애물 등을 제거해 상당히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다. 공원 한 켠에는 스케이트장이 구비되어 있으며 스낵 바도 제공한다. 대중교통(그린라인 C 클리브랜드 서클 역에서 51번 버스로 환승)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 편리하다.

▶보스톤 커먼 플래그스태프 힐(Flagstaff Hill)

Boston, MA 02116
617-635-4505

플래그스태프 힐은 보스톤 커먼의 중앙에 위치한 언덕이다. 야구 구장 바로 옆에 있는 이 곳은 눈이 온 주말이면 썰매를 끌고 놀러온 가족들로 북적하다. 근처에 프로그폰드 스케이트장도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겨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린라인 인베운드를 타고 보일스턴 역이나 파크 스트리트 역에서 내리면 된다.



▶오클리 컨트리 클럽(Oakley Country Club)

410 Belmont Street, Watertown, MA 02472
617-484-2400

눈이 오면 골프장은 눈썰매를 타기 좋은 언덕으로 변한다. 벨몬트에 위치한 오클리 컨트리 클럽은 썰매를 직접 끌고오는 주민들을 위해 언덕

을 제공한다. 매끄러운 눈밭에서 썰매를 즐길 수 있는 이 곳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즐거운 놀이 공간이다.



▶터프츠 대학, 프레지던츠 론(President's Lawn)

419 Boston Avenue, Medford, MA 02155

터프츠 대학 프레지던츠 론의 경사진 언덕에서는 썰매 타는 것을 허용한다. 학교 측은 썰매를 즐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돌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짚단을 나무나 담장 주변에 배치시켜 놓았다. 레드 라인을 타고 데이비스 역에 내린 후 칼리지 애비뉴를 따라 걸으면 캠퍼스가 나온다. 캠퍼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에 프레지던츠 론을 찾을 수 있다.



▶나쇼바 벨리(Nashoba Valley)

79 Power Road, Westford, MA 01886
978-692-3033

www.skinashoba.com

눈이 오지 않아도 썰매를 탈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웨스트포드에 위치한 나쇼바 벨리는 스키장으로도 유명하다. 나쇼바의 튜빙파크는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한다. 2시간 이용권은 \$25이며 리프트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눈썰매 시 주의사항

스키나 스노우보드에 비해 비교적 부담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눈썰매지만 안전에 신경을 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눈썰매를 타러 갈 때에는 방수되는 옷과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청바지나 스웨터, 털실로 짠 장갑은 물이나 땀에 젖으면 쉽게 얼기 때문에 감기나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일반 공원이나 동네 언덕에서 썰매를 타게 될 경우 바위나 나무, 벽 등의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타는 것을 권장하며 헬멧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고등학생 교내클럽인 위안부 알리미 '나비'

위안부에 대해 강의해주실 초청 강사 구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이 일제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자 교내 클럽을 만들었다.

지난 7일 수요일 교내클럽 '나비(Nabi)'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예나 학생(16)과 곽수현 학생(18)을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만났다. 여느 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은 수줍고 밝은 학생들이었지만 위안부에 관련된 주제에는 열정적이고 당찬 모습을 보였다.

'나비(Nabi)'는 차별과 억압, 슬픔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개짓하는 상징적인 뜻을 가졌다. 외국 학생들에게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쉬운 이름이다.

미국 친구들 중 위안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안타까워 클럽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예나 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학생들도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

김 양은 작년 교내 스포츠 대회에서 위안부 주

제로 1등을 했고 점차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작년 10월 클럽 '나비'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위안부 알리미' 활동에 나선 것이다.

김 양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엄청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 북을 제작 및 출판해 하버드 대학, 뉴베리스트리트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펀드레이징을 갖는 것이 현재 이들의 목표다. 모든 수익금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으로 보낼 예정이다.

친구를 도와 적극적으로 '나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곽수현 학생은 12학년으로 바쁘지만 클럽 활동을 위해 짬짬히 시간을 내어 일러스트를 도와줄 20여명의 한국 작가 섭외에 성공했다. 진정성 있는 고등학생들의 도움 요청에 놀랐게도 한국의 일러스트 작가가 200여명이나 지원한 것이다. 아쉽게도 '나비'의 컨셉에 맞는 작가를 20명으로 간주려야 했다.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는 '나비'는 10명 남짓 되는 작은 클럽이다. 정기 클럽 모임에서는 일러스트 북 출판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구상한다. 이날 학생들은 교회 펀드레이징을 위한 브로셔 제작을 놓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현재까지 '나비'는 쿠키나 컵케이크 등을 만들어 파는 베이커 세일로 \$138을, 출석하는 교회에서 \$402의 기부금을 모았다.

미국에서 자란 강윤식 학생(17)은 "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클럽에 들어오게 되었지



왼쪽부터 '나비'의 지도교사 캐스퍼 씨, 김예나 학생, 곽수현 학생

만 모국의 역사에 더 가까워지고 싶기도 했다"며 "배우고 알아갈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클럽 담당 지도교사이자 김 양의 영어 선생님이 마리케이트 캐스퍼 씨는 김 양과 클럽 멤버들의 자발적인 열정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정지적으로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옹호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은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충분히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현재 '나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일 강사 초빙이다. 모든 행사나 펀드레이징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강의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김예나 학생의 소원이다. 온라인 강의나 리서치

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지도 교사의 제안이었다.

"위안부 관련 활동을 했다거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피해자 지인을 대상으로 일일 강사를 모집한다"는 김 양은 "학생 단체로써 사례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자원봉사로 강의를 제공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일 강사 자원이나 모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김예나 학생(yeana997@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모금을 위해 체크를 보내는 경우 'Newton South High School, Nabi Club'이라고 표기해 학교로 직접 보내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곽수현 학생이 제작한 '나비'의 로고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민주평통 신년하례회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3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소재 차이나 인(China Inn)에서 신년하례회의를 개최했다.

폭설이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 및 여러 자문위원들과 하객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성혁 회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도발적인 사안들이 있지만 남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제의에 북한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내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별 강사로 초빙된 엄성준 총영사는 북한의 현 상황으로 유엔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을 통한 압박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재판소 기소까지 거론되는 수반의 위상추락을 거론하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에 대한 북한의 반응 또한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엄 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핵문제와 인권 등의 난제가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새해에는 통일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보스톤 총영사관은 민주평통 보스톤협의

회의 향후 평화통일 조성 사업에 협조키로 했다.

업무 및 경과보고에서 황우성 간사는 하버드 북한인권 세미나, 북한 결핵 퇴치 사업, 참전용사와 노인 감사행사 등의 활동과 그에 따른 재무보고를 발표했다. 황 간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회기까지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동문 부회장의 사회로 즐거운 친교를 위한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참석자들 모두 손을 맞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신년하례회의를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신년하례회의가 지난 3일 로드아일랜드 소재 차이나 인에서 개최됐다

보스톤산악회 새해 첫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0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리틀 헤이스택(Mt. Little Haystack)으로 2015년 첫 정기산행을 간다.

A와 B(왕복 6.4마일), C(왕복 5.6마일)조로 나뉘는 이번 산행은 약 5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난이도는 5단계척도법으로 4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방풍

및 방한 자켓, 우의, 모자, 스틱, 장갑, 스패츠, 식수, 간편중식 등이다. 특히 겨울 산행에는 아이젠(마이크로 스파이크 혹은 크랩폰)과 헤드 랜턴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에 하던 된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 오후 6

시에 마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정보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978-905-5819로 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고객감사 경품대잔치

최신형 도요타 자동차 외 푸짐한 상품 추첨 벌링턴, 캠브리지 점에서 참여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 벌링턴과 캠브리지 매장에서 1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고객 감사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

다양한 상품이 걸린 이번 행사의 1등 상품(1명)으로는 2015년형 도요타 LAV 4 XLE가 주어진다. 2등(1명)에게는 코코 화장품 선물 세트를, 3등(1명)에게는 아모레 화장품 선물세트를, 4등(20명)에게는 H마트 푸드코트 상품권을, 5등(10명)에게는 정관장RG 라떼 박스를,

6등(50명)에게는 하루하루 햄살 15lbs가 증정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벌링턴과 캠브리지 매장에서 \$20이상 장을 본 후 스마트카드를 제시하면 영수증 하단에 응모권이 인쇄되는데 여기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추첨함에 넣으면 된다. 스마트카드 고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은 4월 12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마트 본사 마케팅 부서 관계자는 준비된 행사에 많은 고객의 참여를 바란다며 "최신형 도요타 수상의 영광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H마트 벌링턴이나 캠브리지 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1등(1명): 2015년형 도요타 LAV 4 XLE
- 2등(1명): 코코 화장품 선물 세트
- 3등(1명): 아모레 화장품 선물세트
- 4등(20명): H마트 푸드코트 상품권
- 5등(10명): 정관장RG 라떼 박스
- 6등(50명): 하루하루 햄살 15lbs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하버드 교수들이 만든 헬스케어 하버드 교수들에 적용하니 반발

건강보험료 공동부담은
아픈 것에 대한 비용부과

이미 미국내 다른 직장서
시행 되고 있는 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의 건강보험 경제학 및 정책관련 교수들은 그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인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처방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버드 교수들은 바뀐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

378년된 하버드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및 인문과학 대학 교수들은 지난 11월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신규보험을 압도적으로 반대키로 의결했다. 하버드 대학측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부분적으로 오바마 케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의 지난 11월 반대의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직장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분노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을 하버드에서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커틀러 건강



앨런 가버 의사겸 건강경제학자. 오바마케어에 형성하는데 많은 자문을 했었다. 그는 이번 보험료 공동부담이 전체 건강보험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 교수는 “하버드는 현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실태의 한 축소판이다” 라고 평했다. 그는 하버드 교수들은 지금까지 대학 측이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지 않아 왔기 때문에 고비용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하버드 건강보험 가입 가이드에 따르면, 대학측은 “반드시 전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 물론 일부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도 하다” 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어포더블 케어는 자녀 커버리지 연령을 26세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방암 검사 및 대장 내시경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급(고비용)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케딜락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이끌었던

현대 프랑스사 전문 메어리 루이스 교수는 이번 보험료 인상인 연봉 삭감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더욱이 이 연봉삭감은 새로운 부모가 되는 어려운 시기,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을 때 그리고 아팠을 때 오는 상상가상의 삭감” 이라고 쏘아 부쳤다.

하버드대학은 현재 대부분의 직장 보험 플랜과 유사한 표준적인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다. 이 플랜은 근로자로 하여금 디덕터블을 부담케 하고 수술, 입원, 특정 검사 시 부담하는 코인슈어런스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 하버드 플랜은 개인당 \$250의 디덕터블 그리고 가족당 \$750의 디덕터블이 있으며 의사 방문시 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당 최고 \$1500, 그리고 가족당 최대 \$4,500의 비용에 도달할 때까지 10퍼센트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보험료의 일

부를 부담하면 됐고 아주 적은 공동 비용부담만 있었다.

건강 경제학자이자 하버드 복지혜택위원회 마이클 처뉴 박사는 “이번 변화로 인해 교직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고 인정하고 “하지만 이는 환

건강보험 비용은 아주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하버드 교수로 재직했으며 전 교무처장이었던 제리 그린 경제학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자기 부담은 의료서비스와 검진을 미루게 해서 결국 커다란 병을 발병케 함으로써 미래에 결국 커다란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용절감이란 논리를 반박했다.

케딜락 세금은 아픈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아픈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메리디스 로젠탈 건강경제학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건강보험 변화는 미국 전체가 맞고 있는 변화와 같다. 사실상 다른 곳보다 늦게 하버드에 도착했을 뿐이다” 라며 다른 곳의 변화에는 침묵하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로젠탈 교수는 의료비용 공동부담이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아주 좋지 않는 도구다” 라고 밝혔다.

하버드 건강보험 플랜은 어포더블 케어액트 하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좋은 플랜이다. 하버드 측에 따르면 이 보험 플랜의 의료비용의 91퍼센트를 커버한다. 반면 어포더블 케어액트의 실버 플랜은 평균 70퍼센트 정도만 커버하는 수준이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메어리 워터스 박사는 “하버드가 아픈 사람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돈을 절약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왜 이렇게 하버드처럼 엄청난 자원이 있는 대학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위기 아닌가” 라고 되물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시, 에버릿 카지노 관련 소송 제기

보스톤 시는 카지노 주관 도시라고 주장
에버릿 카지노 면허 적법성에도 의문



에버릿에 건설 예정인 윈 리조트 카지노의 조감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시가 매사추세츠 게이밍 위원회(Gaming Commiss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이밍 위원회는 매사추세츠의 카지노와 슬롯 머신 면허를 허가해주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게이밍 위원회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게이밍 위원회가 윈 리조트(Wynn Resorts)에 개발 허가를 내준 에버릿 카지노와 관련한 소송이다.

월시 시장은 2014년 내내 게이밍 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월시 시장은 윈 리조트가 제안한 카지노 사업에서 보스톤 시가 주관 도시(host community)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에 카지노 건설을 제안한 모헤간 선(Mohegan Sun)의 제안에서도 월시 시장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보스톤 시가 주관 도시로 인정을

받으면 보스톤에 인접한 도시(에버릿의 경우에는 찰스타운)의 주민이 카지노 건설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스톤 시가 주관 도시로 카지노 개발 회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게이밍 위원회는 월시 시장의 주장을 묵살했다. 윈 리조트와 모헤간 선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서 보스톤 시는 인접 도시(surrounding community)로서의 지위만 가진다는 것이 게이밍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후 보스톤 시는 모헤간 선과 인접 도시로서의 협정에 합의했지만, 윈 리조트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카지노 개발권은 윈 리조트에 넘어갔지만, 보스톤 시는 여전히 윈 리조트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씨픽 상급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윈 리조트가 진행 중

인 카지노 사업에서 보스톤 시가 주관 도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스톤 시는 윈 리조트가 합법적으로 카지노 개발권을 취득했는지, 카지노 개발 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이밍 위원회는 보스톤 시의 소송에 대해 “보스톤 시가 제기한 문제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되었던 것들이다. 우리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톤 시는 게이밍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 번째 도시다. 보스톤 시에 앞서 리비어와 씨머빌도 윈 리조트에 부여한 카지노 개발권과 카지노 부지 소유권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라이드 쉐어 서비스 자동차 보험 문제 대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라이드 쉐어 서비스 운전자의 보험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라이드 쉐어 서비스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면서 이 자동차 보험 적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진 운전자가 돈을 받고 운전을 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버를 예로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전에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동안의 보험 적용이다. 우버는 회사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가 제공하는 보험은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기로 동의한 순간부터 차에서 내릴 때까지이다.

우버 운전자가 영업 중이지만 아직 승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버 회사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우버 운전자로 영업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개인 보험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우버엑스(UberX) 운전자에게만 발생한다. 우버 SUV, 우버 택시, 우버 블랙 운전자는 상업 운전 면허와 상업 자동차 보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아예 명시적으로 라이드 쉐어 서비스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개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험 약관에 적어 놓은 것이다. 최소한 4개 자동차 보험 회사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보험 약관에 포함시켰다.

캘리포니아는 라이드 쉐어 서비스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가장 먼저 법으로 규정을 정했다.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는 순간부터 라이드 쉐어 서비스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아직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요즘 너무 추우시죠? 홍삼으로 매서운 한파 이겨내세요

보스톤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온가족 정관장 홍삼제품으로 면역력도 지키고 떨어진 체력도 보강하세요!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FREE GIFT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올 겨울 최악의 플루 시즌 가능성

매사추세츠 주는 감염도 높지만 극심하지는 않아

이미 지난해 피크 시즌보다 감염자 수 넘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전국적으로 플루 전염도가 심상치 않다. 질병통제센터(CDC)는 지난 주 플루 감염자 수와 입원 등을 요하는 플루의 심각성 양면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플루 만연 주의보를 내렸다.

질병통제센터는 일부 주의 경우 플루 감염자 수가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등 미국 내 22개주와 푸에르토리코는 플루가 창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으로 플루의 증가를 측정하는 구글 플루도 높은 플루 증가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달 30일 전국적으로 최악의 플루 시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플루 시즌에는 여러 가지 나쁜 점이 겹쳤다. 첫째 12월에 예년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해 빠르게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또 이번 플루는 사람들이 앓는 정도가 심하다. 더구나 플루 백신이 이번 해 가장 유행하고 있는 플루 타입과 맞지 않아 낮은 백신효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플루 백신 접종 수도 적다.

질병통제국의 마이클 정 박사는 “이미 지난해 피크였던 때보다 플루 감염자 수가 높고 이 수치 또한 점차



텍사스 거주 백신 코디네이터인 루디 솔레로(좌측) 씨가 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텍사스는 플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주 중의 하나다

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플루가 피크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주 더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감염 가능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외곽의 나자레스 고교는 12월 초 780명 중의 4분의 1과 수십명의 교사들이 플루로 걸렸고 학교는 2일간 휴교하고 전교를 소독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플루는 동남부와 중서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하이오 주 데이톤, 테네시 주의 나스빌의 경우 아주 극심한 플루 시즌을 맞고 있다. 플루는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결국 점차 더 많은 곳에서 플루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통제 센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플루 백신 접종을 권

장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인구의 50%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플루 백신을 접종한 상태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낮은 상태에서는 플루는 더욱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백신은 주동 H3N2 타입과 잘 맞지 않아서 백신의 효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일부는 백신의 위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아예 접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타입의 플루도 유행하기 때문에 다른 타입의 플루에 감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루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플루는 심각한 병이기 보다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도지만 연당 4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기도 하다. 올해 유행하는 플루 타입은 H3N2로 전염이 강하고 앓는 정도도 심하다.

hsb@bostonkorea.com

전국의 아버지 219년 전 타임캡슐

주청사 주춧돌에서 발견된 미국내 최고 타임캡슐

당시 사람들은 타임캡슐을 묻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어 이를 하나의 유행처럼 여겼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보스턴 미술 박물관(MFA)이 6일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 중 가장 오래된 타임캡슐을 열었다.

가로 19cm, 세로 14cm, 높이 3.8cm인 상자 안에는 1652년~1855년 사이 은과 구리로 제작된 동전과 글이 새겨진 은판, 조지워싱턴이 그려진 구리판, 당시의 신문 등이 들어있었다. 상자의 무게는 약 4.5kg에 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박물관은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장에서 제한된 수의 기자들을 모아 놓고 219년 전 땅에 묻힌 상자와 그 안의 내용물을 공개했다.

약 200년 전에 묻힌 이 상자는 60년 후인 1855년에 처음 발견됐다. 그때 상자 안 내용물들은 문서화되었으며 깨끗하게 재단장한 후 다시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자는 재매장되면서 1855년의 물건들도 함께 보관하게 됐다.

이 상자는 지난달 11일 매사추세츠의 주 의회 의사당 보수 작업 중 주춧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 주정부 국무장관은 "매사추세츠의 역사는 곧 미국의 역사"라며 "타임캡슐에 담긴 것은 미국을 건국한 위인들의 '거대한 희망'(great hope)"이라 말했다.

이는 1795년 당시 주지사였던 새뮤얼 애덤스와 독립 운동가였던 폴 리버어가 함께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뮤얼 애덤스는 미 헌법 초안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이 다.

hsb@bostonkorea.com



새뮤얼 애덤스, 폴 리버어의 유품, 동전 등을 둘러보고 있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윌리엄 갤빈 주무 장관(두번째)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 미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업용이며 플루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저커버그의 '북클럽' 첫 추천도서 완판 행진

올해를 책의 해로 선정
모이세스 나임의
권력의 종말 추천
아마존서 순식간에 품절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북클럽 운영을 시작하며 최초로 선정한 도서가 순식간에 동나는 사태가 벌어지며 화제에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2일 신년을 맞아 올해를 '책의 해'(A Year of Books)로 선언하고 자신의 계정에 동명의 북클럽을 개설했다.

그는 첫 번째 추천 도서로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출신이며 전 외교안보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편집장인 모이세스 나임(63·Moises Naim)이 지은 '권력의 종말'(The End of Power)을 선정했다.

이 책은 저커버그의 선정을 받은 직후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순식간에 '품절'을 기록했다. 북클럽 오픈 직후 해당 페이지에서 '좋아요'가 순식간에 4000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7일 현재 '좋아요'는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출간된 후 랭킹 4만4000위권에 머물러 있던 이 책의 순위는 7일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를 기록 중이다. 앞서 6일엔 8위까지 치솟았다. 또한 경제 부문에선 1위를 달리고 있다.

IT 전문 블로그 '테크 크런치'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북클럽은 TV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추천도서를 언급해 하루밤 사이 책 판매 부수를 800% 증가시켜 베스트셀러를 만든 기록에 비견된다고 평가했다.

저커버그는 추천도서 선정에 앞서 북클럽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 클럽에서 2주마다 1권씩 책을 읽고 토론할 것이다. 우리가 읽게 될 책들은 새로운 문화, 신념, 역사, 기술 등을 다룬 책들이 될 것이다. 누구든 새로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다. 이 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어야 하며, 우리는 이 같은 주제들을 유지하며 토론을 다루고 멤버십을 관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커버그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 올해의 결심으로 독서를 정한 데서 비롯됐다. 과거 그의 결심은 중국어(만다린) 배우기, 매일 넥타이 매기 등이었다.

저커버그는 올해 결심으론 매일 2권의 신간을 읽겠다고 "책은 오늘날의 그 어떤 매체보다 더 깊이 주제를 탐구하고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 기존 권력에 대한 저커버그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추천' 이유

미국의 세계적인 온라인저널인 허핑턴포스트는 저커버그가 이 책을 선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 내용을 분석했다.

작가는 '기업의 중역실, 전쟁터, 교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 전과 동일하지 않은 이유'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에서 많은 전통적인 기관들은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엔 정부, 대기업, 군사조직, 교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의 권력은 보잘 것 없는 벤처기업, 신생 미디어 아웃렛, 리더십을 갖추지 않은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책의 내용은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커버그의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 권력의 종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의미
나임은 자신의 책에서 "지구온난화, 경제 위기, 핵무기 확산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지구촌을 위협하는 일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며 "어떠한 국가, 국제기구, 집단, 혹은 개인도 이 같은 위협들을 중단시킬 권력이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권력 활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나임은 5일 CNN에 출연해 페이스북과 구글조차 자신들의 권력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심화, 유럽에서의 구걸 활동 제한, 거대 중국 시장으로의 침투 난항 등을 예로 들었다. acenes@@news1.kr



이번주 일요일 또 지하철 노팬츠 데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 주 일요일 11일 올해도 지하철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노팬츠 지하철타기 행사는. 이벤츠 그룹 보스톤SOS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깨고 삶에 충격과 즐거움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다.

11일 아직 미정인 시간에 참여자들은 보스톤의 레드, 오렌지, 블루, 그린 라인 등 모든 지하철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활보할 예정이다.

노팬츠 지하철타기는 2002년 뉴욕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다. 보스톤에서는 지난 2008년 시작돼 지난해에는 약 350여명이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에 올라탄 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다. 이후 이들은 승객들과 자신들이 바지를 벗은 이유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려 시도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ostonSOS.org에서 얻을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지난해 11월 원유수출 1920년 이후 최고치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지난해 11월 원유수출량이 하루 50만 배럴을 넘어 19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하루 원유수출량은 전달보다 약 12만6천 배럴 늘어난 50만1천766배럴이었다.

이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192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EIA는 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이달 말께 지난해 11월 원유수출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5만4천947배럴은 캐나다로 수출됐다. 이밖에 스위스에 2만275배럴, 싱가포르에 1만6천945배럴이었으며 중국에도 9천599배럴이 수출됐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엔티비(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와줍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BS, O'live, OCN


본사의 모든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본사의 모든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본사의 모든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The Best On Demand.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터치는 가라'...승용차 인포테인먼트 음성·제스처가 대세

포드는 싱크 3 차세대 음성 기술로 무장
GM은 구글, 애플 등 OS 탑재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박대한 전성훈 기자 =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켜집니다. 당신의 체형에 맞춰 시트를 조정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플레이합니다."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공식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만큼이나 흔하게 자동차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요타, 벤츠, 포드 등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쉐프리와 같은 정보기술(IT) 업체 역시 IT와 자동차를 결합한 스마트카와 관련한 혁신적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CES에서 눈에 띄는 경향은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터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성과 제스처로 작동하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을 앞다퉈 내놨다는 점이다.

인포테인먼트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자동차에서는 통상 센터페시아 내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이 결합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말한다.

포드의 '싱크3'가 대표적이다. 차세대 음성작동 기술을 적용했다는 싱크3



포드의 <싱크 3>

는 음성으로 모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

운전자가 이름을 말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역시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다.

오디오, 날씨, 폰, 내비게이션, 앱스 등으로 구분한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돋보였다.

아직 사람 이름과 같은 경우 발음이 복잡하다보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비게이션 등은 큰 오차없이 작동했다.

GM은 구글의 차량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의 카플레이 등을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내놨다. 역시 음성으로 명령이 가능하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CES에서 사람의 손짓에 따라 작동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내놨다.

고민감 센서가 내장돼 사람이 손을 아래위로 가볍게 흔드는 손짓에 따라 작동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IT업체인 쉐프리와 캐딜락 자동차에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올조인(AllJoyn)' 서비스를 연동했다.

자사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사람의 체형에 맞게 시트를 조정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 들려주기도 한다.

쉐프리는 'Internet of Things'를 넘어 '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모토로 사물인터넷을 재정의했다.

쉐프린 부스에서 만난 에린 코커 잘만 씨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체형을 가졌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백악관 "유가하락, 미 경제 및 중산층에 좋은 일"

(뉴욕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미 백악관은 5일 "유가하락이 미 경제와 중산층을 위해선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에 대해 백악관이 특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은 미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돈이 넉넉하지 않은 중산층에 이는 확실히 좋은 것"이라며 "중산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경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계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갤런당 1달러까지 싸진 것은 미국인들의 가용 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하락이 최근 수년간 미 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의 원유생산의 생산효율성 기준을 높이려는 노력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하락세가 너무 과도하자 에너지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 증시가 흔들려 경제



자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모멘텀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더 나아가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실직자들이 늘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는 5%이상 급락, 장 한때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며 2009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 충격으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역시 3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1.8% 하락 마감했다.

다만 어니스트 대변인은 유가하락이 좋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엔 주저했다. 그는 에너지 주가 급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주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

'키스톤 법안' 충돌서 저유가가 오바마에 '호재'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의회를 장악한 미국 공화당이 개원과 함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6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거부권 행사를 다짐한 오바마 대통령이 저유가 덕분에 큰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석유 생산이 급증하면서 키스톤XL 송유관을 통해 들여오게 될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데다, 원유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도 갤런 당 2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이 오바마에게 호재라는 것이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에너지·기후 프로그램 책임자인 드보라 고든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추가적인 원유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 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키스 하버드대 교수도 휘발유 가격이 낮은 점과 키스톤XL 법안이 탄소 배출이 많은 오일 샌드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법안에 쉽게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된다고 밝혔다.

키스톤 XL은 캐나다 앨버타 주 내륙의 하디스티와 미국 네브래스카 주 스틸시티를 대각선으로 잇는 1천900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하루 83만 배럴을 보낼 수 있다.

기존 키스톤 송유관은 두 도시를 '7'자 모양으로 잇고 있으며, 오클라호마 주 쿠싱과 일리노이 주 파토카까지 연결돼 있다. 쿠싱에서 북미 지역 대부분의 정유소가 있는 텍사스주 맥시코만 연안을 잇는 송유관은 지난해 1월 완공됐다.

하디스티-스틸시티 구간이 완성되면 맥시코만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총 연장은 3천km가 넘는다. 공화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키스톤X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mihee@yna.co.kr

미국 공화 베이너 하원의장 3연임 간신히 성공

공화 25명 반란표에 과반 조금 넘겨
막판 티파티 중심으로 리더십에 문제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6일 하원의장 3연임에 간신히 성공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제114회 의회 개회일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베이너 의장을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112회 의회부터 하원의장을 맡아 온 베이너 의장은 앞으로 2년간 더 하원을 이끌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베이너 의장은 출석의원 408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긴 216표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4표를 각각

얻었다.

베이너 의장은 애초 지난해 '11·4 중간선거' 압승 이후 공화당이 자신을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낙승을 예상했으나 막판에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를 중심으로 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어 고전했다.

루이 고머트(텍사스) 의원이 베이너 의장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테드 요호(플로리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 등이 잇따라 베이너 의장을 찍지 않겠다고 공개로 선언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25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는 꼭 2년 전 113회 의회 하원의장 선출 선거 당시 나온 내부 반란표 12표의 두 배이자 역대로 현역 하원의장의 재선 또는 연임 투표 사상 가장 많은 반란표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베이너 반대론자들은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 대체안 예산안 처리 등에서 사사건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타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베이너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 같은 표결 결과를 의식한 듯 낮은 자세로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의원 여러분이 각자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돕겠다.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sims@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크업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모든 정부' 대상 자원외교 국조 타결...26일 예비조사

이명박 정부만 국한하지 않기로 증인 선정은 추후 협상키로

(서울=뉴스1) 박상희, 서미선 기자 = 여야가 8일 오전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핵심쟁점이었던 조사범위와 관련해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대, 결국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이번 국조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국조특위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냥 이 문제

로 국조활동이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저희가 오늘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쟁점이었던 증인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만큼 사실상 논의를 뒤로 미뤄 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일단 기관보고를 끝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이 분들에게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는 국조가 제대로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 아무 것도 안했다고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유명한 사람을 다 불러서 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를 나타내겠다는 의도"라고 말해 향후 증인 채택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여야는 대부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청문회는 그 이후 실시한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한편, 국정조사 기간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시점인 지난달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따른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국회법상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이후 실시된다

고 주장, 이날 여야간 논쟁이 오간 바 있다. 권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사구서에 통과한 날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조 특위를 무작정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양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ukoo@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AN. 9TH - JAN. 15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more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cipes, events, announcements, and even entertainment!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www.facebook.com/hmartofficial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Let's Go Places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Jan. 9th - Apr.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 Apr.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 **83 WINNERS!**



2015 RAV 4 XLE

- 1st Prize :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 2nd Prize :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 3rd Prize :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 4th Prize :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 5th Prize :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 6th Prize :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 raffle ticket.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ies, related vendors, & tenants of all Hmarts are ineligible to win. You may email us at marketing@hmart.com for more detail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New Year. NEW YOU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새롭게!
 Come in and start the new year with a healthy new attitude.
 비타민과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세요!

MORE FRUITS AND VEGETABLES
 HEALTHY DIET
 REGULAR EXERCISE
 DRINK MORE WATER

-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lb.
- KABOCHA 단호박 **\$0.99** lb.
- BEEF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1.49** lb.
-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2\$5** 1.5 lbs. ea./for
- SCALLOP 10-20's 조개 눈 (관자) **\$9.99** lb.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4.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California Bussel Spinach 캘리포니아 부셀 시금치 bun. \$0.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Onion 양파 10 lbs./bag \$4.9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p>FRESH</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49</p>	<p>FROZEN</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7.99</p>
<p>FRESH</p> <p>Beef Short Plate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p>	<p>FROZEN</p> <p>Cooked Whelk Meat 골뱅이살 lb. \$10.99</p>	<p>FROZEN</p>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7oz./pkg. \$5.99</p>	<p>FROZEN</p> <p>TONGTONGBAY Frozen Squid Flower Cut 통통배 슬빙을 오징어링 1 lb./pkg. \$2.99</p>	<p>FROZEN</p> <p>SANFORD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2 lbs./pkg. \$7.99</p>	<p>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2.99</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5.99</p>	<p>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닭표 스리라차 소스 28oz. 2\$5 ea./for</p>	<p>HANSUNG Kamaboko 한성 갈뽕궁합 가마보꼬 1.1 lbs. \$3.99</p>	<p>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캔 14.1oz. \$4.99</p>	<p>CJ Katsuo Udon CJ 가쓰오 우동 Original/Tempura 16.4 - 17.28oz. \$2.99</p>	<p>POLARBIRD Seasoned Wild Pollock Roe 플라버드 명란젓 14oz. \$12.99</p>
<p>SHIRAKIKU Sanuki Udon 시라키쿠 사누끼 우동 2.75 lbs. \$3.99</p>	<p>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25% Less Sodium Lite - 12oz. 2\$6 ea./for</p>	<p>ESBENSHADE FARMS Grade A Large Eggs 에스벤쉐이드 팜 라지 달걀 18cnt/pkg. 2\$5 for</p>	<p>Plaid Blanket 체크무늬 무릎 담요 Red/Blue/ea. \$7.99</p>	<p>YOBO HOME Cordless Elec. Glass Kettle 여보홈 전기 유리 주전자 White/1.7L/ea. \$24.99</p>	<p>TIGER Electric Grill Pan 타이거 전기 그릴 CPK-D130/ea. \$99.99</p>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득표수, 순위 놓고 신경전도

비노계 박주선·조경태 당 대표 후보 컷오프 탈락 최고위원 컷오프선 노영관 고배

(서울=CBS노컷뉴스) 김현, 박상휘, 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나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7일 실시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 본 경선에 진출했다.

또한 9명의 후보가 나온 최고위원 경선 컷오프에선 현직 기초의원(수원시의원) 출신으로 출마했던 노영관 후보가 탈락, 8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컷오프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후보들은 내달 8일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불꽃 튀는 선거전을 벌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중앙위원 378명 중 326(투표율 8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컷오프를 실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5명의 후보(문재인·박지원·박주선·이인영·조경태)를 문재인·박지원·이인영 등 3명으로 압축했다.

당내 비노(비노무현)계이자 중도·온건파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인 박주선 조경태 후보는 '계파정산'을 내세웠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당내 4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를 앞세워 컷오프를 통과했다. 486그룹과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는 물론 이번 전대 불출

마를 선언했던 정세균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인1표로 실시된 당 대표 컷오프에선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컷오프에서의 득표수와 순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득표수와 순위를 놓고 각 후보 캠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측은 문 후보가 과반이 넘는 160~170표 사이를 득표해 90표 정도에 그친 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섰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측은 박 후보가 135표 정도를 얻어 120표 정도를 득표한 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이 후보측은 이 의원이 110표를 얻어 문 후보(130~140표)에 이어 2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인3표로 진행된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에선 9명의 후보(기호순으로 전병헌·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청래·박우섭·노영관·문병호·오영식) 중 현직 수원시의원인 노 후보가 탈락했다.

컷오프를 마친 새정치연합은 10일 제주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거쳐 2월8일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원샷경선'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 당원(10%)·국민(15%) 25%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는 20대 총선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지원·문재인·이인영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에 통과되고 나서 단상에 올라와 나란히 서 있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계파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첫 출발이니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 경력이라든지, 당내 기반 등이 저보다 앞선 분들이니 제가 추격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다만 세계 강점이 있다면 일반 민심에서 앞서는 것인데, 그 민심이 그대로 담심으로 연결되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나올 수 있는 네거티브는 다 나왔다. 앞으로는 본선인 만큼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을 말하는 그런 전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제가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문 후보는 새정치연

합의 자산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후보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 가장 유망한 대선후보'라고 말했으니, 그 길로 가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계획"이라며 "(이번 전대는)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 대통령(후보)를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486그룹의 이인영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데 대해 "이 후보는 젊음의 상징이고 당의 미래다. 그분이 보다 박력 있는 새정치연합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양성시킬 것"이라면 서도 "(본선은) 나쁜 구도가 아니다. 이번에 본선에 들어오지 않은 박주선 후보랑은 이미 단일화에 합의했고, 조경태 후보도 저와 비교적 대화를 하고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는 "이제 반란이 시작됐다. 우리 당이 정당혁명으로 갈 것인

지, 이슬로 사라질지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반드시 낡은 정치와 싸워 승리할 것이다. 계파패권, 지역주의와 싸울 것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앞으로 '2(문재인·박지원) 대 1' 구도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당선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심과 민심을 폭발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선 경쟁을 위한 기호추첨 결과, 당 대표 후보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 순으로, 최고위원 후보 추첨에선 유승희, 박우섭, 문병호, 이목희, 정청래, 주승용, 전병헌, 오영식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gayunlove@news1.kr

'야당내 신당추진' 국민모임, 신년회

양기환 대변인 "앞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선정해 본격 활동"

(서울=뉴스1) 김현, 박소영 기자 = 진보진영 내 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한 '국민모임'이 7일 신당추진위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나섰다.

시민사회와 학계·문화계·종교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YWCA에서 신년회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년회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명진스님, 손호철 서강대 교수 등 '신당창당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1차 선언에 참여했던 105인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모임은 신년회에서 신당추진위 출범,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1050명이 참여하는 2차 국민선언 실시 등 4가지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기환 국민모임 대변인은 신년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국민모임은 가칭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를 떠난다. 앞으로 위원장·부위원장·간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국민모임은 새로운 정치세력, 신당이 만들어져 도소멸되는 게 아니라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박

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유신의 잔재를 척결할 때까지 신당을 옹호·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 대변인은 "(4월 보선에)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모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합류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참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정 상임고문은 이날 신년회엔 불참했다. 대신 정 고문과 가까운 김성호 전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모임은 오는 12일부터 4월까지 전국 대도시에서 국민대토론회를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다. 국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 토론회 토론회에선 신당의 노선과 가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2월 초에 1050명이 참여하는 '2차 국민선언'을 발표하고, 주요 언론에 광고를 통해 신당의 필요성과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전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gayunlove@news1.kr

연제욱, 댓글갯수 등 보고받고 수정사항 지시

전해철 의원실,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의혹 재판 판결문 공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소위 '사이버 심리전' 당시 매일 아침 전날 밤 댓글 갯수와 인터넷 여론 동향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받아 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재판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18일~2012년 11월1일 재직 당시 매일 오전 6시 심리전단상황실에서 정치 관련 댓글 수치가 포함된 대응작성결과를 보고받으며 주도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전 사령관은 예하 지휘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자필 수정을 하거나 접착식 메모지를 통해 수정 사항을 지시했다.

또 문맥, 오타, 자구 수정 등 보고서 최종

본을 점검하면서도 전일 수행한 '대응작성'에 대한 포괄적 승인은 물론 대응작성 유의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론 비판, 사이버사 대응전략, 댓글수 등이 담겼다. 대응작성 수행결과 인터넷상 지지여론이 5%에서 20%로 올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재판부는 심리전단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고대녀의 개발언",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는 거 아니다", "정신 나간 X" 등 특정 정치인을 비하 또는 비방하는 글과 영상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사령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2012년 7월6일 "당 청년 비례 후보였으며 일명 고대녀로 불림"이란 문구와 함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 내용이 사령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mith@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한 때 친박 핵심 박세일, 왜 친박의 공적이 됐나

비례대표 공천 전권, 정책위의장 등 박 신임 세종시 문제로 '탈당'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정치권에선 과거 그의 행적이 화젯거리로 오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박 이사장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서청원 최고위원 등 당내 친박(親박근혜)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친박 진영에서는 박 이사장에 대해 "배신자, 구시대적 인물" 등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고 있다.

친박계인 홍문중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박 이사장에 대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이기보다는 구시대적인 인물"이라며 "과거 정치적인 행보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당원들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과 친박 사이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7대 총선 직전 당 대표 자리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박 이사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지내긴 했지만, 당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당시 당 입장에서는 박 이사장의 보수 이념 성향과 수 많은 학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학계 인맥을 통한 보수 재집권 토대를 놓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이사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즉시 17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공천 전권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았다.

공천권을 쥐고 박 이사장은 본인을 비례대표 순번 2번에 공천했고, '박세일 사단'으로 불린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건영 연세대 교수 등도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대거 '배지'를 달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총선 직후에는 박 이사장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 보내 두터운 신임을 보였다.

그랬던 박 대통령과 박 이사장의 관계는 1년도 채 못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급이 가기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이듬해 3월 의원직까지 던지고 전격 탈당했다. 강한 신뢰를 보냈던 박 이사장의 이 같은 반기에 당시 박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의 배신감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배신자는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박 대통령은 과거 가족사 등으로 배신감의 강도가 더했다"며 "이 때부터 박 이사장과 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 진영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박 대통령 등 친박과의 악연은 계속됐다.

친박과 친이(親이명박)계 격하게 충돌했던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재완·이주호 전 장관, 윤건영 연세대 교수 등이 친이 캠프로 대거 합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박 이사장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생각을 창당하면서 친박의 심기를 다시 건드리게 된다.

국민생각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전여옥 전 의원을 영입해 잠시 '원내 정당'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민생각 비례대표 1번을 공천 받았지만 1석도 얻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전 전 의원 역시 친박으로부터는 '배신자'로 공격을 받은 인물이었다.

전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며 장기간 대변인을 맡았지만, 이후에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종교집단 같다"는 등 '독설'을 아끼지 않으며 거리가 급격하게 멀어졌다.

친박 입장에서 국민생각의 대표와 상징적인 비례대표 1번이 모두 불륜한 관계였던 셈이다.

국민생각은 19대 총선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등록이 취소됐다. 박 이사는 이후 실시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보수 진영의 지지 선언 이상

의 의미는 없었다.

친박 진영에서 박 이사장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이 같은 과거의 악연과 함께 여의도연구원의 현실적인 역할도 맞물려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등 계파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자리다. 친박에서는 특정 계파가 여의도연구원을 장악해 정보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홍문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의 틀을 만드는 것이 여론조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데 여의도원장과 당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김 대표와 박 이사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ydkim@news1.kr

박세일을 어쩌나...진퇴양난 김무성의 깊어지는 고민

'김무성-서청원'

긴장감 고조

이인제는 김무성에

힘 실어줘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기자 = 1년 가까이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을 놓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당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서청원 최고위원 등 당내 친박(親박근혜)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서 박세일 명예이사장 임명 여부는 김 대표와 친박간 갈등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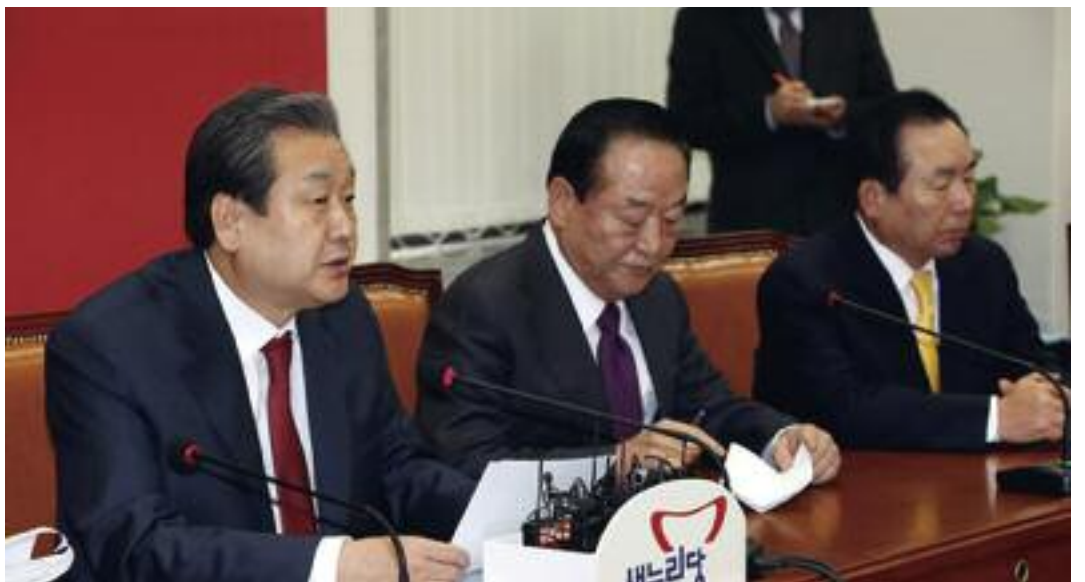
종시 이전 여부를 두고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탈당했던 박 명예이사장의 전력을 표면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등 계파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핵심 보직이란 점 역시 친박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천천히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의도연구원장 인선과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지난 번에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처음처럼 (박 명예이사장의 임명을) 재고해달라는 얘기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왜 소통을 안하고 대표가 (언론에) 말을 하느냐"고 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을 놓고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사

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장기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여의도연구원을 빨리 정상 궤도로 올리는 획기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선진통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영입

에 공을 들이는 등 박 명예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을 추구하고 나선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박 명예이사장을 영입하려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ydkim@news1.kr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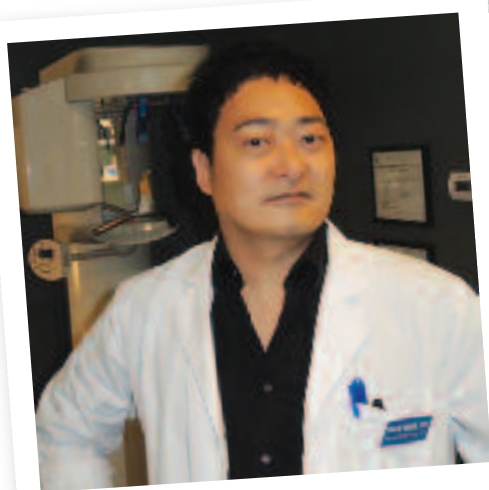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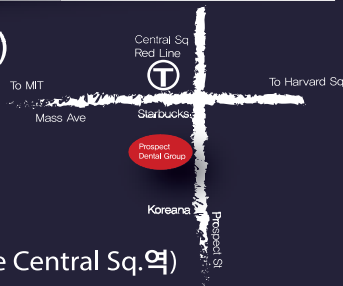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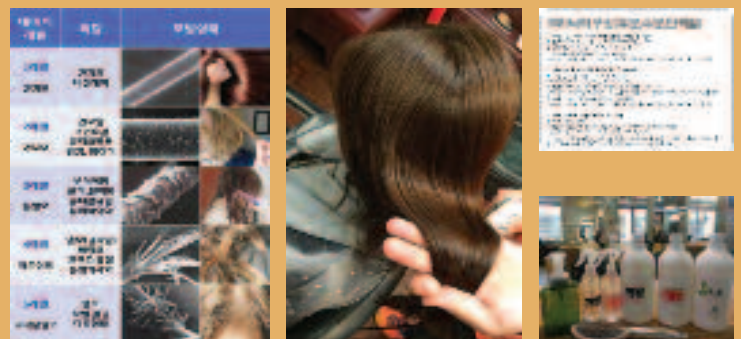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이혼한 40대 대졸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

현대연 보고서

"전문직 20대 미혼녀
제일 행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며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20대 미혼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7일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니 2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100점 만점에 48.9점으로 가장 높았다. 40대는 40.9점으로 최저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49.5점으로 제일 행복했으며, 대졸자는 43.8

점으로 가장 불행했다.

보고서는 "2007년부터 15차례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대졸자의 행복감이 고졸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령·결혼여부·직업·성별·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40대, 이혼, 자영업자, 남성, 대졸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20대, 미혼, 전문직, 여성, 대학원졸업자인 경우 가장 행복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행복지수는 44.9로 지난 조사때보다 8.2포인트 상승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지급된 기초연금의 효과로 분석됐다.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노후준비 부족'(24.8%), '자녀교육'(22.6)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주택문제'(16.6%), '일자리 부족'(16.3%)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41.3%), '탈세 예방'(31.7%), '정부예산 절감



'(21.1%) 순으로 응답한 반면, '세울인상'(6.0%)은 응답률이 가장 저조했다.

한편 지역별 행복지수를 6회 조사 때부터 이번까지 평균해본 결과 1인당 소득(GDP)가 가장 높은 울산이 43.4점으로 1위였으며 경기(43.2), 대구(42.7), 대전(42.4), 경북(42.1) 등 지역

이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 묶어보면 대구경북권이 42.4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조사된 행복지수의 총 평균은 44.5점으로 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이명박 정권때보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김동열 실장은 "조사된 항목 중 '경

제적 불안'과 '경제적 평등' 항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노후준비와 자녀교육,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한의원에서 체열 진단기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는 환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성큼'...복지부, 검토 착수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해 논의 올해 상반기 허용범위 확정 예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한의사들이 일부 의료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다만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같은 최첨단 의료기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합리적인 허용범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결정에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현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구체적인 의료행위 태양·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한의사의 교육·숙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아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된다"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적어도 현재 결정문에 열거된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보건 의료 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도 복지부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sj@news1.kr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

봐주기 논란 일듯 고소인 측, 재정신청 할 수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학의(50)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전차관을 소환도 하지 않고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 자신이라며 이모(38)씨가 김 전차관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동영상에 사진 촬영된 모양이 뒷 모습과 옆모습 뿐이라서 고소인 이씨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2013년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 자기라고 해도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수사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6월과 7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해당한다"며 "이번에는 촬영시점이 2008년 1월과 2월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촬영 시점도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결론지어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씨는 동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지난해 7월 김 전차관을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junoo5683@news1.kr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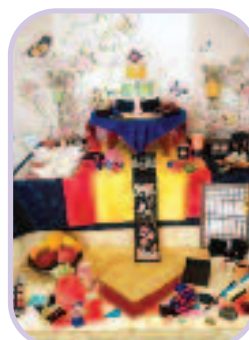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y Parish of Boston Diocese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 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와줍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연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투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매운탕까지



사시미A18인치 투고박스: \$150

160피스+매운탕+마끼4개
T10,S20,F40,H10,W20,R40,i20



사시미C14인치 투고박스: \$80

70피스+매운탕+마끼2개
T10,S10,F10,H10,W10,R20



사시미B16인치 투고박스: \$100

110피스+매운탕+마끼3개
T10,S10,F20,H20,W10,R20,i20



사시미D12인치 투고박스: \$50

50피스+매운탕+ 마끼1개
T6,S6,F10,H6,W10,R12

T: TUNA, S: SALMON, F: FLUKE, W: WHITE TUNA, R: RED SNAPER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하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A: 72피스, 초밥 \$98.95

B: 64피스, 스페셜롤 \$74.95

C: 64피스, 캘리포니아롤 \$34.95

D: 48피스, 캘리롤24피스, 초밥24피스 \$48.95



김밥:

A: 김밥 200피스, 유부초밥20개 \$130

B: 김밥 100피스, 유부초밥10개 \$70



사시미 폭코스

횃집스타일 코스요리를 제공하오니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많은 애용바랍니다. 싱싱광어한사라, 아구간, 열빙어튀김, 나또무침, 한치물회, 흰투나, 생굴, 우니, 초밥, 스키프버터구이, 생선찜, 스페셜마끼, 얼큰매운탕, 모찌아이스크림 일인당40불이며, 단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디비전 라운드 격돌: 패트리어츠 vs. 레이븐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한 주간 휴식을 취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격파하고 올라온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번 주말에 격돌한다. 경기에 앞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자.

게임 배경

패트리어츠는 이번 시즌 3번에 걸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 초반 9월에는 4경기를 치르면서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2달 동안은 AFC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거듭났다. 당시 소속 지구에서 1위를 하고 있던 벵갈스, 브롱코스, 콜츠, 라이온스 등을 20점 이상 큰 점수 차이로 연달아 격파하며 최강의 모습을 보였다. 시즌 막바지,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전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레이븐스는 이전에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파츠보로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승리한 경험이 있다. 탐 브래디가 주전 쿼터백이 된 이후 홈에서 무적에 가까운 패트리어츠를 포스트시즌에 2번이나 꺾은 팀은 레이븐스가 유일하다. 그러나 레이븐스 역시 수퍼볼을 차지했던 2년 전과는 다른 팀이다. 오히려 수비는 훨씬 강화되었다. 레이븐스는 정규시즌 16경기에 걸쳐 공격력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공격과 수비 모두 약점이 거의 없는 팀으로 거듭났다.

쿼터백 압박

쿼터백에 대한 압박은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레이븐스의 패스 수비는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레이븐스는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블리츠를 사용해 상대 쿼터백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와일드 카드 경기에서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 벤 라슬리시버거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레이븐스의 쿼터백 압박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패트리어츠는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팀이지만 장거리 패스의 비중이 낮고 러닝 공격도 꾸준하지 않다. 쿼터백 브래디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짧은 패스 위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브래디만 흔들 수 있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정규시즌 16주차 경기에서 뉴욕 제츠는 패트리어츠의 오피스브 라인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레이븐스는 이런 약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패스 수비

패트리어츠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팀이다. 특히 패스에 대한 수비는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 패트리어츠가 수퍼볼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패스에 대한 수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의 세컨더리는 체력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상대팀 리시버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해 왔다.



AFC 챔피언십 진출권을 놓고 패트리어츠와 레이븐스가 맞붙는다

패트리어츠 수비의 에이스인 대럴 르비스가 레이븐스의 토레이 스미스를 개인 수비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카일 애링턴이 셰이프티와 협력하여 토레이 스미스를 수비하고, 르비스가 스티브 스미스를 전담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븐스의 쿼터백 조 플라코는 장거리 패스를 주저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공격적인 선수다. 플라코의 장거리 패스를 패트리어츠가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

흥미로운 기록들

패트리어츠와 레이븐스의 가장 최근 플레이오프 경기는 2년 전에 있었다. 그러나 2년 전과 비교하여 레이븐스는 (53명 중) 36명의 선수가 바뀌었고,

패트리어츠는 32명의 선수가 바뀌었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는 포스트 시즌 홈경기 기록이 12승 3패에 달한다. 그러나 3패 중 2패가 레이븐스에게 진 것이다. 2005년 이후로 레이븐스 같이 가장 낮은 시드를 받은 팀이 가장 상위 시드를 상대했을 때의 기록이 5승 4패다. 의외로 낮은 팀의 승률이 더 높다. 패트리어츠는 5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첫 주 경기를 쉬고 있다. NFL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이다.

경기 결과 예상(NFL.com)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탐 브래디-빌 벨리치 조합은 우승 공식처럼 여겨졌다. 패트리어츠는 매년 우승 후보로 꼽혔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수퍼볼 우승을 못하면 팬들은 실망했다. 올해는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건강하고 대럴 르비스가 수비를 이끌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올해가 수퍼볼 우승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레이븐스를 홈에서 꺾지 못한다면 그린베이나 시애틀을 중립지역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레이븐스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의 레이븐스는 원정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점수 예상: 패트리어츠 27 - 레이븐스 19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70

아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일년반 동안 한지붕아래서 살던 동생 가족이 지난 주에 근처에 있는 콘도로 이사를 갔다. 조카들도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동생도 두어달 전에 원하던 가게를 인수해서 사업에 열중하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 들어섰기에 따로 독립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사철이 아닌데도 딱 맘에 들어하는 집이 나와서 보내는 맘이 한결 가벼웠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사느라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아침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상당한 눈치와 신속함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미국 생활이 많이 적응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따로 살게 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미국 생활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약 8년 전 오랫동안 있었던 학교생활을 뒤로 하고 프로 골퍼로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행히 아내가 건설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프로 골퍼로의 길을 가는 동안 별도의 재정적인 스폰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다. 그때 선뜻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형의 평생 소

원하는 것을 후회없이 해보라며 프로 골퍼가 되는 초기에 거금의 재정적인 후원을 해 준 사람이 바로 동생이다. 그 당시 다행히도 동생의 사업이 가장 잘 될 때였기에 가능한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다. 동생의 그 후원으로 인해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해 보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동생의 고마움에 비해 때 함께 살았

던 일년반 동안 형으로서 별로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한 사업,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조카들의 학교 생활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람있게 풀려나가기 바란다. 축스럽지만 지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다시 한번 더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요즘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와서 재미있게 하는 일이 있다. 집의 한 부분을 레노베이션 하는 일이다.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구조 변경을 하여서 사용하던 것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집에 붙어 있는 차고를 서재겸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여서 사용하다가 일년반 정도 전에 동생 가족이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함께 집에서 살게 되어 갑자기 3개의 방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방 하나는 쉽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서재겸 사무실로 사용하던 커다란 방을 2개의 방으로 나누어야만 되었다. 중간에 벽을 치고 양쪽으로 각가 옷장을 만들어서 작지만 그런대로 사용 가능한 2개의 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던 방을 벽과 옷장을 다시 없애고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중이다.

'청문건' 유출수사 종결... "범행동기 없는 반쪽 수사"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
지난해 5월 세계일보에
복사본 짜 건네

(서울=뉴스1) 전성무, 홍우람 기자 =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경로는 크게 두 갈래였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문건 유출경로 외 유출 당사자들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은 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되는 과정 전반에는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그의 손발 역할을 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경로는 우선 '조응천→박관천→박지만' 루트다.

조 전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직인사 특이동향'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 상부 보고를 마친 뒤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박 경정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한 박지만(57) EG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찾아가 문건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정윤희 문건'을 지칭하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희)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19일 작성된 '최근 파견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 동향'이라는 문건도 박 회장에게 건네졌다.

또다른 유출경로는 '박관천→서울청 정보분실 경찰관→세계일보' 루트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10일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과 다른 소식을 접한 뒤 유출한 청와대 문건을 같은달 12일부터 4일간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자리를 비웠다.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희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문건'을 포함해 총 14건이다.

이후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가 지난해 2월15일 주말 당직 근무를 서면서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 경정의 집을 뜯어 문건을 모두 복사했고 이는 다시 숨진 최모(사망·당시 45세) 경위에게 전달됐다.

박 경정의 집에는 박 경정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수사첩보, 수사자료 등 문건도 담겨있었다.

최 경위는 다시 평소 친분이 있던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위' 관련 문건, 'H사 비자금 조성 의혹' 문건 등 2건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지난해 5월8일에는 복사본을 통째로 조 기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경위가 조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길 때 '정윤희 국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희씨의 비선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개입 문건'도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최 경위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세계일보는 지난해 4월2일 [단독]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관련 비위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고 같은해 11월28일에는 '정윤희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했다.

박 경정은 세계일보 보도 직후 청와대 감찰에서 자신이 조 기자에게 문건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유출 당사자로 지목되자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숨기려고 'BH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동향'이라는 허위 '유출 경위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유출경위보고서'에는 또 다른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 3명 중 1명→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세계일보 조 기자를 통해 청와대 문건이 유

출됐고 당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수사를 통해 유출경로는 대부분 퍼즐이 끼워 맞춰진 셈이다.

그러나 조 전비서관이 왜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박 경정에게 지시했는지, 박 경정이 따로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견제하거나 청와대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의 경우 청와대 문건 내용이 고급 정보라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원대복귀한 뒤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획수사 아이템으로 활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백이나 물

증은 없어 동기를 속단할 수 없다.

조 전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문건 전문이 아닌 쪽지 형식으로 총 6건만 건넸을 뿐이고 이는 대통령친인척 관리라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박 경정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왜라고 범행 동기를 물으면 부인을 해 이런 상황에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조 전비서관의 행위가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박 경정의 범행 동기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서울청 정보분실 한 경위에 대해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lennon@news1.kr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쌍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두께 0.4mm의 두께로 쉽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NAR) / 2014년 최우수 에이전트 / 1000만 달러 이상 실적 /
국제부동산협회(IFA) / 2014 최우수 에이전트 / 100만 달러 이상 실적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9,99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2 January 9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9

〈사라이 레스토랑〉

1098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617-383-6651
sarayboston.com

연타바 **730** (The 730 Play)로 새겨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하러오세요.

Welcome, **73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패카드 코너에 위치한 사라이 레스토랑(Saray Restaurant)은 할랄 인증을 받은 터키 레스토랑으로 이색적인 지중해 요리와 터키 요리를 한껏 선보이는 맛집이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법에 의해 도축된 고기만을 사용하며 보통 위생 검사를 겸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마크다.

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메뉴는 단연 양고기다. 통째로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밥과 야채와 함께 먹는다. 담백한 토마토 소스와 상큼한 요거트, 렌치 소스를 곁들인 케밥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저 나오는 피스타치오가 고소함을 더한다. 양도 푸짐한 베이코즈 케밥은 \$17.95이다.

런치메뉴로는 팔라펠, 지중해식 샌드위치 자이로, 케밥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가격대는 \$7.99에서

“실제 터키 음식과 가장 비슷하다” 는 호평을 받는 이곳은 8년째 보스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터키 고유의 맛을 잃지 않도록 이스탄불 출신인 사장 내외와 주방장이 매일 맛을 보고 요리에 매진한다는 것이 매니저 나탈리아의 말이다.

사라이 레스토랑에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터키 분위기를 물씬 난다. 호박 팬케이크(Zucchini pancake), 바바그누쉬(Baba gnoush), 후무스(Hummus)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에피타이저다. 디저트는 달콤한 바클라바(Baklava), 카다이프(Kadayif) 등의 생소한 메뉴들로 가득하다. 기분 전환을 위해 이색적인 터키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추위를 녹이기 위한 따뜻한 터키 홍차와 홈메이드 빵이 나왔다. 세프가 아침마다 직접 굽는 터키식 빵은 쫄깃하면서도 향이 독특하다. 달콤한 홍차와 곁들여 먹으니 입맛이 돌아 메인요리가 더욱 기다려진다.

\$12.99로 디너보다는 비교적 저렴하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런치메뉴를 시키면 레드 렌틸 수프(Red Lentil Soup)이나 후무스를 함께 제공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터키 음식이라 하면 케밥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주로 닭고기와 양고기, 소고기를 사용하는데 터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에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 용 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클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유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3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아스타일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
||
||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대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B라인 뱍콕,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N [매 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렌트 또는 매매 합니다 (하드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N [매 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압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N [매 매]
스시 왕가게 매매 일년에 36만불 매상올린가게 사우스케롤라이나 오렌지버그지역 매매가 8만 5천 좋은위치, 좋은비즈니스
T. 803-760-9292

N [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N [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 [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 [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곤벨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90년대 추억으로의 초대 전 국민이 감동했다

순간 최고시청률 35.9% '토토가' 90년대 추억 소환 '눈물+감동'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순간 최고시청률 35.9% 기록한 '무한도전-토토가' 특집이 화제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는 29.6%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수들이 함께 앙코르 곡으로 부른 터보의 '트위스트 킹' 무대는 순간 최고시청률이 35.9%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90년대 추억 여행 '토토가'의 실황이 공개됐다. 지난 방송의 터보, 김현정, S.E.S의 열기

를 이어 받아 쿨, 소찬휘, 지누션, 조성모, 이정현, 엄정화, 김건모 총 7팀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모든 가수들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함께 부르며 엔딩무대를 장식했고 거듭되는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가수들은 터보의 '트위스트 킹'으로 화답했다.

방송 전부터 '토토가' 출연 가수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했으며, 방송 직후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관련 노래들이 차트에 재진입하며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순간 최고시청률 35.9%, 박명수 정준하 상줘야겠다", "순간 최고시청률 35.9%, 토토가 또 보고싶다", "순간 최고시청률 35.9%, 시즌2에서도 보고 싶은 가수가 정말 많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lee1220@news1.kr



'킬미힐미' 첫 방송부터 수목극 2위

지성, 황정음의 힘?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킬미힐미' 첫 방송이 순조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킬미힐미' 1회는 9.2%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극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중인격자 차도현(지성 분)과 정신과 레지던트 오리진(황정음 분)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박서준은 오리진의 쌍둥이 오빠 오리는 역을 천연덕스럽게 그려냈다. 그는 낯살 좋은 쾌활함과 차도현의 집안을 취재하는 등의 의문스러운 행보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킬미힐미' 첫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킬미힐미 첫 방송부터 대



박 조짐 보여", "킬미힐미 첫 방송, 역시 황정음과 지성", "킬미힐미 첫 방송, 진짜 재밌었다", "킬미힐미 첫 방송, 앞으로 본방사수해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 시간대 방송된 SBS 수

목드라마 '피노키오'는 11.8%의 전국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KBS2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은 7.3%의 시청률로 꼴찌였다.

chaebin922@news1.kr

'토토가' 열풍속 엄정화 '포이즌'

음원차트 정상 무려 17년전 노래가?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엄정화의 과거 히트곡 '포이즌'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7일 음원사이트 지니 측은 "1월 1주차 실시간 누적 차트 1위에 오른 곡을 집계한 결과 엄정화의 '포이즌'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포이즌'은 지난 1998년 발매된 엄정화 4집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발매 당시 V칩을 히트시키며 각종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휩쓴 히트곡이다.

'포이즌'의 1위 소식에 엄정화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도 진짜 오랜만"이라며 "정말정말 감사하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까지는 이 기분 좋길래요"라며 '포이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원차트 화면을 게시물에 갈무리해 올렸다.

출시된지 17년이 지난 '포이즌'이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데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토토가'의 열풍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엄정화는 '무한도전-토토가'의 무대에 올라 '포이즌'과 '초대'를 열창하며 당대 최고의 여가수다운 면모를 발휘하며 방송 직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와우 엄정화 정말 대단하다", "이대로 가수 복귀해 주세요", "명곡은 시대를 지나도 명곡인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라미란, 남편 막노동 존중 발언

누리꾼 찬사 쏟아져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라미란이 남편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누리꾼의 찬사를 받고 있다.

라미란은 지난 6일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직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라미란은 "남편이 막노동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거다"라며 "남편이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모든 연예인의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능력껏 사는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라미란은 지난해 5월 tvN 예능프로그램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남편의 직업과 관련된 질문에 "막노동 한다"고 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라미란은 남편이 대부업에 종사한다는 루머에 대해 "남편이 소액대출을 하는 회사에 다닌 것이다. 그래서 일수 짚고 수금하러 다닌 거다. 대

출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라미란은 "남편이 결혼 전 매니저로 일했다. 그런데 2002년 결혼하고 나서 음반시장이 불경기였다. 그냥 월급쟁이 매니저였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관됐다"며 "당시 나도 연극을 했지만 무명이었고, 연봉이 몇백도 안 됐다. 둘 다 수입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애 낳고 상황이 더 힘들었다. 7-8년 정도 수입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낼 정도였다. 지금 TV나 영화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겠다고 하지만 빛 갚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나는 여배우에 대한 환상이 없다. 사람들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막노동한다고 한다. 떳떳하게 자기 몸으로 일하는 건데 불법도 아니고 창피하지 않다"고 당당히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와 라미란 진짜 대단하네요", "어쩐지 정말 당당해 보이더라", "진짜 당찬 여성 같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2월 29일 ~ 2015년 1월 4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위아래	EXID
02	LUV	Apink
03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4	광화문에서	규현
05	GOOD BOY	GD X TAEYANG
06	Angel	윤미래
07	사뿐사뿐	AOA
08	세 사람 (With 성시경)	토이
09	싱싱생생	다이내믹 듀오
10	HAPPY TOGETHER	박효신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9.9%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6.9%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3.9%

4	MBC	무한도전	22.2%
5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20.5%
6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20.2%
7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9.1%
8	KBS2	해피선데이	17.0%
9	KBS1	KBS9시뉴스	16.6%
10	SBS	정글의법칙(코스타리카)	15.6%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6					1
	8			5	1			6
				9			8	
1	7		4					8
5				1				7
2	3				7			4
		2		4				
8	9		3	7				2
4					2			

1월 11일 - 1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서로 통할 수 있는</p> <p>● 운수: 말 한마디에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주입니다. ● 금전: 남보다 한 발 앞선 결정이 이익과 연결되니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겠습니다. 나날이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한 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소띠 확실하게 해두어야</p> <p>● 운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생기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 금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이성간에는 불화의 운이 있으니 짜증이 나고 답답해집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범띠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p> <p>● 운수: 잘못하면 어려운 일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쉽습니다. 미리 잘 살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이라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슬프게 하고 있군요.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서로가 편하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5, 16일 길일. 11, 17일 주의.</p>
<p>토끼띠 즐거움이 따르니</p> <p>● 운수: 망설이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선 실천부터 하세요. 소극적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기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손해를 막고 유리하게 풀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애정: 즐거움이 따르니 가족이나 애인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3일 주의.</p>	<p>용띠 신중히 행동하도록</p> <p>● 운수: 어떤 변동이나 변화를 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세월의 흐름 속에 큰 강을 건너왔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2, 14일 길일. 11, 13일 주의.</p>	<p>뱀띠 자신에게 유리한</p> <p>● 운수: 시험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자격증 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입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면 혼사문제는 질질 끌지 말고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말띠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p> <p>● 운수: 작은 실수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니 주의가 요청됩니다. ● 애정: 서로가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양띠 현명한 일 처리가 요구되는</p> <p>● 운수: 그 어느 때보다도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내다보는 마인드와 현명한 일 처리가 요구되는 주입니다. ● 금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부부간에 오는 권태로운 시간이 지나가면 쌓인 게 있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로써 풀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5일 길일. 12, 13일 주의.</p>	<p>원숭이띠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p> <p>● 운수: 무리한 욕구와 의욕으로 허탈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인일 경우는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 금전: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는 매매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사귀고 있던 연인이나 같이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 있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닭띠 행운의 시기로</p> <p>● 운수: 모든 여건이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차분한 상태가 되어갑니다. ● 금전: 행운의 시기로 금전 사정이 나아집니다. 명예나 지위 등에 있어서도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외로웠던 사람에게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등장하게 되는 주입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개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p> <p>● 운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이나 선입견이 오히려 자신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슬럼프에서 벗어나 풀리게 되는 운입니다. 사업자는 우선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이나 현재 처한 상태를 보아가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해야 만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돼지띠 좋은 인연이 닿게 되는</p> <p>● 운수: 너무 크게 일을 벌이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로 일을 시작해야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이므로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이 닿게 됩니다. 결혼에 한번 실패한 경우에는 아픔을 딛고 받게 웃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p>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美 퓨즈TV 선정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2NE1의 히트곡 '내가 제일 잘나가'가 미국 퓨즈TV가 선정한 '2015년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9'에 포함됐다.

미국 퓨즈TV는 최근 "하이 에너지와 흥이 나는 이 노래들을 들으며 '새 해, 새로운 나'의 다짐과 함께 힘을 내보자"라는 코멘트와 함께 '2015년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9'를 선정했다.

퓨즈TV는 '내가 제일 잘나가'에 대해 "이 K-POP 노래를 듣고 흥이 나는데 한국가사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노래는 히트했고 힘을 돋게 하는 노래이며, 심지어 다른 경쟁사에 '내가 제일 잘나간다'라고 표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에도 사용된 곡"이라고 설명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는 2011년 여름 발표 동시에 국내외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쓴 곡으로 일렉트로닉과 힙합을 바탕으로 레게와 아프리카 리듬 등 다양하나 요소가 혼합된 노래다.

또한, 신나는 비트와 반복되는 리듬으로 2NE1만의 특색있는 매력이 한껏 담겨 전세계 많은 팬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부를 돌파했고, 지난해 8월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태블릿 'SURFACE PRO3'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



도 했다.

이같은 인기몰이 덕에 '내가 제일 잘나가'는 지난해 10월 빌보드의 '월드 디지털송' 차트에서 차트 진입 8주 만에 1위에 오르는 '여주행'의 파워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리스트에는 '내가 제일 잘나가' 외에 Taylor Swift의 'Shake It Off', Shakira와 Rihanna의 'Can't Remember to Forget You'와 Sia의 'Chandelier' 등 다수의 유명한 노래들이 함께 포함됐다.

kun1112@news1.kr

EXID '위아래', 가온차트 주간 4관왕 '기염'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걸그룹 EXID의 '위아래'가 가온차트 주간 4관왕을 차지했다.

8일 가온차트측에 따르면 EXID의 '위아래'는 2015년 2주차(12월 28일~1월 3일) 가온차트 디지털종합차트와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차트, 소셜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EXID의 '위아래'는 지난해 8월 27일 발매된 곡으로 역주행 5개월 만에 정상에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2주차 디지털 종합차트 2위와 3위는 각각 에이핑크의 'LUV'와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가 차지했다. 4위는 Ariana Grande의 'Problem' (Feat. Iggy Azalea), 5위는 윤

미래, 타이거JK, 비지가 함께 부른 'Angel'이 차지했다.

2주차 앨범차트는 신인 걸그룹 소나무의 'Deja Vu'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아울러 신화와 씨엔블루 정용화는 K-팝 스타들의 글로벌 인기를 가늠하는 가온웨이보차트 그룹과 개인 부문 정상에 올랐다.

한편 2014년 12월 월간차트 디지털 종합 1위는 에이핑크의 'LUV'가 기록했으며 앨범부문 1위는 엑소의 'EXOLOGY CHAPTER 1: THE LOST PLANET'가 차지했다.

kun1112@news1.kr



이본 장진사단 합류 속 "나는 재벌" 과거 발언 화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이본 장진사단 합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공개된 재산 목록이 재조명받고 있다.

배우 이본은 과거 방송된 QTV '신동엽과 순위정하는여자'에서 "나는 재벌"이라며 결혼정보회사 가입신청서를 공개했다.

이본은 자신의 신청서 재산목록에 2억원 상당의 외제차와 72평대 아파트를 적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취미 및

특기사항은 골프, 스킨스쿠버, 보디빌딩이라고 작성했다.

이본은 "언니 정말 대단하다"는 정가은의 반응에 "언니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라고 답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본은 장진 사단인 필름이수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선다.

lee1220@news1.kr



쥬얼리 해체, 멤버 예원만 원소속사 남는다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장수 그룹 쥬얼리가 해체된다는 소식을 알려 왔다.

쥬얼리의 소속사 스타제국은 7일 쥬얼리의 해체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스타제국은 "2001년 '사랑해'를 통해 데뷔한 쥬얼리가 올해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으로 활동할 쥬얼리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하주연, 박세미는 새로운 곳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예원은 스타제국에 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khe4567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 전망대

〈김씨의 뿌리(28)〉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7) : 미추왕릉 지구 장식 보검



켈트 문양. 장식보검 삼태극 문양.

1973년 경주 미추왕릉 지구의 계림로 배수로 공사 때 이곳 14호분에서 환두대도와 같은 종래의 신라 보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장식 보검이 출토되었다.

한 눈에 이 칼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칼이 아니고 아랍이나 유럽에서 만들어 신라로 들어온 칼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공사 중에 땅 속에 파묻혀버린 적석 목곽묘가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황금 장식 보검은 피장자의 허리나 가슴 부분에 놓여 있었고 두 쌍의 금 귀걸이와 비취옥 2점, 금제 사자머리 형상의 띠고리 2점(버클), 마구와 철제 대검이 장식 보검과 함께 출토되었다.

두 명의 남자 피장자가 묻혀 있었는데 진골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단조각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진골 귀족의 무덤으로 파악되었다. 보검의 칼과 칼집은 소멸된 지 오래고 금장식만 남아 있는데 장식의 길이는 36cm, 최대 폭 9.3cm인 단검이었다.

칼자루 끝 부분은 골무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스퀴라,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석류석을 박아 치장하였다. 칼집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작한 판에는 태극 무늬같은 삼태극 무늬를 넣고 무늬 사이에는 역시 붉은 석류석을 박아 넣었다.

칼 끝 부위인 아래 쪽은 사다리꼴 모양인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가장자리는 그리스식 소용돌이 무늬(나선무늬)로 둘러져 있고 가운데는 역시 석류석을 박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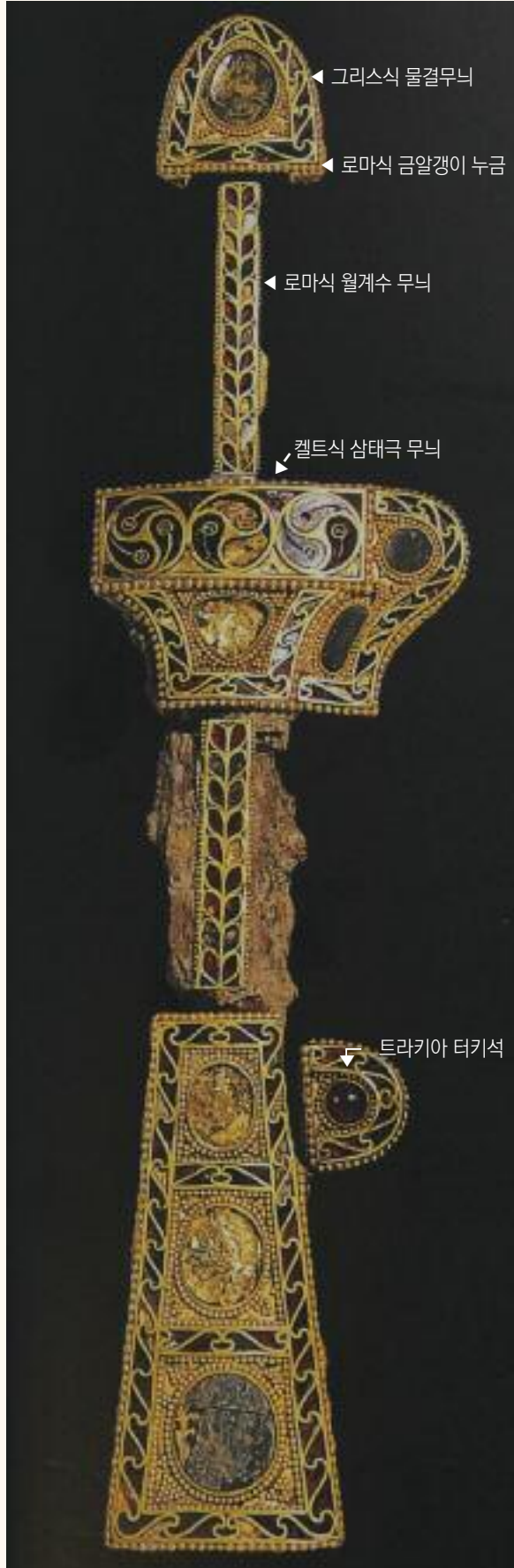
보검의 표면에 보이는 무늬들은 그리스식 나선무늬(물결 무늬), 파무늬(삼태극무늬), 메달무늬(비잔틴 기법)에 테두리는 누금기법으로 금 알갱이를 장식하였다. 누금기법은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한 장식 기법이다.

세 개의 파무늬(삼태극무늬)는 일반적으로 태극무늬 안에는 다른 무늬를 새겨 넣지 않는데 이 장식 보검 파무늬 안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이 들어있었다.

태극무늬 안에 꽃봉오리, 나무 잎새, 사람 머리나 동물 머리 형상을 박아 넣는 것은 트라키아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즐겨 사용하던 기법이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트라키아에 살던 켈트족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드려 로마화한 사람들이었다.

칼 주위를 장식한 그리스식 물결 무늬에, 신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많은 값비싼 석류석으로 치장하고 켈트족 고유의 삼태극무늬를 감안하면 이 보검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트라키아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장식 보검이 발견된 곳은 트라키아 지방이 아니고 신라 경주 왕릉지구였다.



장식 보검 전체 모습

트라키아에서 경주는 8,000km 거리에 있다. 동유럽 트라키아에서 값비싼 보검을 만들어 계림로 14호분 피장자에게 선물했다는 얘기가 된다. 누가? 왜?

트라키아는 지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지역으로 4, 5세기 때는 동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훈족의 왕 아틸라(atilla)의

근거지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트라키아 훈족이 신라 왕족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말이 된다. 왜?

학자들은 훈족의 원류를 흉노족에게 두고 있다. BC 3세기 이래로 수백년에 걸쳐 흉노와 중국은 끝을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 왔다.

마침내 흉노가 제압당하면서 흉노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아랄 해 부근의 훈족이 되었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라, 가야의 지도계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망정 예전에 같은 혈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훈족이 유럽을 석권하고 트라키아의 맹주가 되었다면 재능 있는 켈트족을 시켜 값비싼 장식 보검을 만들어 신라에 보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국립경주 박물관은 황금 장식 보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5세기 중앙 아시아에서 활동한 소그드나 박트리아 에프탈 등의 유럽 민족 집단이 동로마 제국 또는 동유럽의 이민족과 접촉해 이 지역의 장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장식 보검이 북방 유목민이나 중국 중원을 거쳐 신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 고대 유물의 대가 요시미츠 츠네오 교수는 14호 고분에서 장식 보검과 함께 출토된 사자머리 형상의 버클에서 신라와 트라키아 간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 버클은 로마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4-5세기 경에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하던 품목이었는데 값비싼 장식 보검과 함께 중국, 고구려, 백제를 제쳐두고 구태여 신라를 택해 보낸 것은 그만큼 트라키아와 신라가 친연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로마의 유리잔들이 경주 천마총과 황남 대총에서 출토되고 페르시아 사산조의 각배가 중국, 고구려, 백제의 무덤에는 일절 볼 수 없지만 신라 가야의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4호 고분에서 나온 장식 보검과 유사한 모양의 단검은 카자흐스탄의 보르보예와 이탈리아 랑고 바르드 묘에서 보검의 일부가 출토되었다. 중국 신장성 키질 동굴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허리춤에도 이와 유사한 장식 보검이 묘사되어 있다.

장식 보검은 전 세계에 딱 3개뿐이고 원형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검은 전무하다. 그런대로 신라의 보검만이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독자들은 트라키아 고유 문양과 장식 보검을 비교하면 이 값비싼 보검이 트라키아에서 신라로 보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식보검과 함께 출토된 사자머리 형상의 버클(로마시대때 유행했음)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텔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텔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고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디고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울라스틱 에로마 케어 - 에로마 전신케어 + 갈라보스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갈라보스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들면 주름 피할 수 없지만 이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디고만의 특별한 케어는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어주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4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HURAM
www.huramkorea.com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양구광역에 있습니다.

미국문의: 818.331.0401 카카오톡: 010.3469.4040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서로 마주하면 '갱년기'에 대한 대화가 만연한 나이에...

엇그제부터 처음으로 까만 머리 중앙 가리마 사이에 칫솔 너비만큼 염색을 시작했다. 이제는 염색을 해야 할 때도 되었다고 입버릇처럼 하긴 했는데 막상 염색약을 개어 부러쉬에 묻혀 거북이 목마냥 비죽 내밀고 화장실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혼자서 보려니 순간 웃음도 나고 뭘지 모를 묘한 기분이 휘돌고 만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 모양이구나! 싶었던가 보다. 언제나 늙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마음은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을 그 마음인 것을 어찌 이제야 깨닫는지 철없이 지내온 그 시간이 고맙기도 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잠시 깨닫는 시간이다.

2015 '청양의 해' 乙未年을 맞으며 한국 나이로는 쉰 둘이 되었다. 염색을 이제 막 시작한다는 얘기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머리가 하얗져 염색을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 그래,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염치없는 사람이니. 그것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얌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철없이 살아 이제야 머리 끝으로 철이 들어올 모양이다. 남편도 곁에서 몇 마디 거른다. 내 머리를 보라니까 하면서 머리를 내 앞에

들이댄다. 나는 벌써 언제부터 양쪽 머리가 하얗게 되었는데 이제서 그러느냐고 말이다.

"언니, 아직 네 번째 아이 하나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넷째 애 낳으면 내가 봐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 더 낳아라" 하고 만나면 언니를 놀리는 가깝게 지내는 동생과 동생을 놀려먹는 친자매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나면 한바탕 웃음으로 깔깔 거린다. 그것은 건강해 보기 좋다는 두 사람의 칭찬이고 덕담이기도 하다. 늘 곁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친구들(언니와 동생들)이 있어 오늘이 더욱 행복한 이유인 게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지인)들이 겪는 '갱년기'를 보며 사실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1년 2년이 아닌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자신과의 싸움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이들도 몇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 나누는 대화가 거의 '갱년기'에 대한 얘기가 많다.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은근히 염려도 되었지만, 외향적인 성향이 더 많은 나는 갱년기가 오더라도 별 탈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무작정 마음을 가졌었다. 우리가 어려서 겪었던 사춘기도 특별히 심하게 겪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는 듯, 마는 듯 조용하게 지나가는 아이도 있었기에.

그래서 엇그제부터 시작한 칫솔 길이만큼의 염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고 마음을 먹었다. 자라 목처럼 쪽 배고 거울을 들여다 보는 이 시간도 즐기자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즐기는 편이니 이것마저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시간일 테니 말이다. 가끔 갱년기를 심하게 앓았던 형님(만동서)이 카톡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온다. 열심히 산을 오르고 여기저기 열정적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는 동서는 갱년기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아래 동서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이다.

염색을 이제 시작했다는 이 말을 들은 딸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술 더 뜬다. 아빠인 남편도 아내가 입는 옷에 별 불편함을 말하지 않는데, 엄마의 생단발머리와 스키니 진 그리고 짧은 반바지와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엄마를 가끔은 못마땅해 하는

딸아이. 그래서일까. '엄마의 갱년기'라는 말에는 좋아라 하듯이 엄마의 나이를 다시 한번 반복 확인을 시켜준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엄마의 폐경기'마저 들춰 엄마의 기를 죽이려는 딸이 때로는 밉기보다는 서운할 때가 있다. 모두가 떨어져 살면서 한 번씩 만나면 화들짝거리며 웃은 우리 집 '모녀간의 풍경'이다.

누구든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 누구에게든 전달함에 있어 힘이 없는 법이다. 친구와 지인들이 겪었던 '갱년기와 폐경기'의 그 시간들이 내게 간접 경험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나도 이렇듯 이제 시작이지만 겪어야 할 '갱년기와 폐경기'를 무작정 염려나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 또한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마음의 준비로 시작해야겠다. 지금의 칫솔 길이만큼의 염색의 시작이 내 온 머리카락을 바르고 다르다 덧칠해야 할 날이 오더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오늘도 소망해 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양들의 침묵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정월 초하룻날 밖에 나갔다. 너무 추위 거의 동사凍死 하는 줄 알았다. 재치기와 쿨함에 감기만 데리고 들어왔다. 지난주 겨울날이 춥지 않다고 입방정을 떨었다. 별을 단단히 받는 모양이다.

새해 아침상에 떡국은 드셨는지. 올해는 양의 해다. 양들의 침묵은 영화 제목이다. 조디 포스터와 앤소니 홉킨스가 나오던 공포영화인 게다. 동물농장. 서수남과 하청일이 '동물농장' 을 불렀다. 영문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대학에 들어가니 'Animal Farm' 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다. 게다가 원어로 읽어야만 했다. 읽기는 커녕, 어렵게 따라가면서 주섬주섬 대충 넘겼다. 내용은 골치 아프다. 책에선 돼지의 반란이고, 양들은 우매한 대중이다. 오늘은 동물농장을 차린다. 옛적 이스라엘에선 양양 일곱 여덟 마리에

두세마리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했다. 염소는 양양에 비해 활발하므로 쉬지 않고 휘젓고 다닌다. 그 바람에 안전한 양들은 긴장하고, 양들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했다. 현대 그런 염소들은 여전히 선하지 않은 부류로 취급 당한다. 양은 선하고, 염소는 배드가이가 된다 는 말이다. 양에 비해 염소는 꽤 부지런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너무 설치는데 흠결이던가? 사춘간일텐데, 조금은 다른듯 싶다. 양이 풀려 다닐 적에, 염소는 혼자 다닌다.

'일본인을 게을러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민은 오직 한국인 밖에 없다.' (뉴스 위크) 말을 바꾼다. 양들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가축은 오직 염소밖에 없다. (김모 씨)

한국 신문에서 읽었다. 한국 모 정당이 해산되었다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한 구절이

인상적이다. '빠꾸기 알을 그대로 둔채 뱀새는 자기새끼를 모두 잃는다.' '빠꾸기 알을 밀어 내야 하는 건 어미뱀새가 해야 하는 몫이다.' 딱딱할 법한 법 판결문에서 매우 이례적인 구절이다. 하긴 뱀새의 알과 빠꾸기 알은 모양이 다를 게다. 어미뱀새의 눈으로 보아도 쉽게 구별 할수 있을터. 게다가 아무리 뱀새라 해도 설마 제가 낳은 알인지 아닌지 눈을 감고도 찾을수 있을게다. 양과 염소는 다르긴 다르다. 더욱 빠꾸기와 뱀새도 크게 다르다. 그러니 뱀새가 빠꾸기 알까지 품을 수는 없었다. 동지가 늙다 해도, 빠꾸기와 동거는 불편한게다. 구별은 해야 하고 슈아 내야 할건 슈아내야 하는가 보다. 양을 염소와 구별하듯 말이다.

올해는 푸른색 양이란다. 청양靑羊이라. 작년에도 푸른색 말이더만 올해도 푸르다. 상상

의 동물일테지만, 푸른색 양은 어색하다. 잉크를 뒤집어 쓴듯 하니 말이다. 애들 머리 염색한 것처럼 애교스럽지만은 않다. 푸른 풀밭에서 노니는 흰색 양은 생각해 봤어도, 푸른색 양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다. 그런 양들이 요새는 어떻게 지내던가. 몰려다니는 양들이 각 개돌진하고 있나? 양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가? 하긴 그 본성이 가진 어딜 가겠는가. 그래도 올해에는 아주 조금은 입을 열었으면 한다. 염소에게 대들 줄 알아야 하고, 염소에게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국인이 양처럼 순하다 했던가. 토끼처럼 양순하다 했던가.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래도 여전히 양이 오른편 일적에 염소는 왼편이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 25:31)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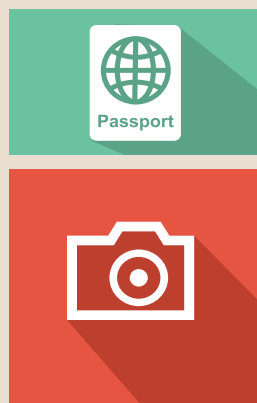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3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계속해서 지도관(조선연무관)을 들여다 보면,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는 서울에서 태동했지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은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관세館勢를 확장하였다. 당시 전일섭이 1947년5월 전북 군산에 지관支館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1955년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이리, 남원, 정읍 등 군군 소재지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조선연무관이 '지도관'으로 개칭한 때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갑자기 초대관장 전상섭이 행방불명(남북)되는 관계로 당시의 지도 사범으로 있던 윤쾌병이 이종우와 함께 '지혜로운 길'을 의미하는 '지도관'으로 바꾸고 1967년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지도관은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 통합과정에서 윤쾌병과 이종우간의 상반된 입장차이로 무덕관과 같이 심한 내홍을 겪었다. 이종우가 이남석(창무관), 엄운규(청도관), 현종명(청도관) 등과 함께 협회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반면 윤쾌병은 무덕관의 황기관장과 함께 '종신제 최고 심사위원'를 고집하며 협회 통합의 대세에 동조하지 않았다. 지도관 출신으로는 배영기, 이종우, 김복남,

박현정, 이수진, 정진영, 이교윤, 이병로, 홍창진, 박영근 등이 있다. 특히 지도관은 다른 관에 비해 대련(겨루기)을 중시해 태권도 경기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완, 조점선, 황대진, 최영렬 등이다. 지도관의 대표적인 분관은 이교윤의 한무관이다. 그러나 이교윤은 한무관의 뿌리는 지도관이 아니라 조선연무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시 조선연무관이 지도관으로 개칭되는 과정에서 정통성 시비에 문제가 내제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지도관은 초대관장 전상섭에 이어 2대 윤쾌병, 3대 이종우로 이어왔다. 다음은 창무관을 살펴본다.99) 창무관彰武館은 윤병인尹炳仁이 1946년 서울 종로에 위치한 기독교 청년회관(YMCA)에서 'YMCA 권법부'라는 이름으로 창설하였다. 당시 윤병인은 경성농업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전상섭과 함께 조선연무관에서 무도를 가르쳤다. 윤병인은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중국무술인 '주안파' 권법을 수련하였다. 그리고 해방 직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공수도(슈토크 가라데)를 배웠다. 중국무술의 경지가 높

아 5단을 인정 받았으며 당시 일본대학에서 수도관修道館(슈토크) 가라데의 창시자인 '도야마 간켄遠山寬賢'의 문하에서 수련하였다. 일본에서의 스승은 확실하지만 만주에서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록이 없다. 윤병인의 무술 실력이 대단했음은 분명하다. 도야마 간켄이 윤병인의 중국무술을 보고 한 눈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은 서로 무술을 교류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그리고 윤병인은 일본대학에서 일본인을 모두 제치고 가라데부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무술의 경지가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 윤병인과 도야마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 무술을 교류한 관계'로 곳곳에 서술되어 있는것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간다. 즉 도야마 간켄은 가라데를 가르쳐 주었고 윤병인은 중국무술을 그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윤병인의 높은 무술의 경지는 인정하지만 1939년경에 만난 그들은 윤병인이 갓 스무살의 청년이었고, 도야마 간켄(1888 - 1966)은 50대 초반이었다. 오키나와 출신인 도야마 간켄은 일본 본토에 가라데를 전파한 명인의 한 명으로 당시 일본대학 가라데부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야마 간켄대만에서 생활한 적이 있기에 그다지 중국무술에 생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남방

무술을 수련했으며 윤병인은 북방무술을 수련했다. 이 정도의 무술의 달인이 과연 갓 20세의 청년으로 부터 무술을 배웠을까? 예나 지금이나 좀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가르친다는 것은 배움의 연장이다. 하지만 지도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터득하는 것과 세대차이를 넘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하였다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도야마 간켄의 제자 목록에 윤병인 외에 한국인으로 윤쾌병(조선연무관의 창설자 전상섭이 행방불명된 후 지도관으로 개명하여 관장을 맡았음)과 김기황(1960대 미국으로 이주해 태권도를 전파한 초기 사범) 등이 사범으로 올라 있다. 따라서 윤병인만 도야마 간켄과 대등한 관계였다면 윤병인과 윤쾌병, 김기황의 관계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윤병인은 도야마 간켄의 애제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99) 참고 문헌: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 보경문화사, 1999), 태권도지도이론(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태권도의 역사-네이버 지식iN.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 (마고북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의 입학생 선발 정책” 인종 차별 소송

1922년에 당시 하버드 로렌스 로웰 총장은 대놓고 “유태인의 침공이 하버드를 망칠 것이다” 공공연하게 말하며 유태인의 입학 정원을 15%로 제한한다. 1900년대에 7% 정도였던 유태인의 비율이 1922년에 이르러서 하버드 입학생의 21.5%를 차지하자 입학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당시 하버드는 “character and fitness (신입생의 인성과 적합성)”라는 애매한 기준을 입학사정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유태인 학생들의 숫자를 제한하였다. 이 정책은 1950년대까지 거의 30년간 지속된다. 지난 11월 24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을 보자. 이 글은 야사 멍크라는 하버드를 다녔고 현재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글에 따르면 반 세기전에 유태인에게 적용되었던 비슷한 불공평한 상황이 현재 동양인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의 하버드 대학은 백인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가진 엘리트들이 장악하면서 반 유태인 감정이 만연하여 유태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였다면, 현재 하버드 캠퍼스는 겉으로는 여러 인

종을 수용하는 diversity정책 아래 입학 사정 과정에서 동양계 학생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쥐어 아시아계 학생들은 17.7-20.7% 밖에 되지않았다. 20년 전에도 합격률 19.1%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한국, 일본, 인도, 중국의 이민자들의 자녀들과 경제적 부상, 유학 개방 정책으로 해마다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야사 멍크가 뉴욕타임즈에 쓴 글에 따르면 2014년 하버드 입학생의 12%는 흑인, 히스패닉 13%,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은 2%, 동양계 학생은 20%이다. 즉 47% 정도의 숫자가 minority소수 인종으로 채워지며, 나머지는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버드 대학 당국은 50% 정도의 백인의 비율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하버드 대학 입학생 가운데 동문 자녀의 합격률 12%, 운동

특기생 13%에 달하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백인 부유층 자녀였다. 현실적으로 25%에 달하는 이들의 숫자를 줄여야 동양계 학생의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 우수한 학교 성적, 리더쉽, 봉사 활동까지 갖춘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지원서 쓰는 것을 도와주면서 매년 당황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14년11월 17일에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성적 우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 SF 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 대학 총장과 입학 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스톤 연방법원에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Were You Denied Admission to College? It may be because you're the wrong race.”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학 입학 사정 제도의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하버드 대학 로버트 이울리아노 법고문은 공식 성명에서 “하버드 대학은 아시아계 혹은 다른 인종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불공평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활발한 대학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배경이나, 경험, 특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FFA에드워드 블룸은 “소수 집단을 위한 우대 정책은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핑계이다”라고 하며,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혜택이란 명분으로 ‘소수 민족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역설적으로 백인이 소수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투명한 입학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연방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릴거라고 예상되어, 하버드 대학측이 부인한 입학사정 심사 기준을 놓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이 소송의 최종 결정은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 제도에도 여러 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왜인가? 지난 20여년간 매사추세츠주에서 교직에 몸 담았던 필자는 중, 고등학교 점심 시간에 학교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흑인은 흑인끼리, 동양인은 동양 아이들끼리, 자신의 인종끼리 모여 앉았다. 아직도 미국 사회

에서 인종 간의 차별이나 분리는 있다. 어쩌면 하버드 같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층 배출해내는 대학에서 현 50% 백인의 비율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견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투자한 동문들이 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그 학교에서 교육시켜서 기득권을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립대학은 물론 하버드와 같은 사립학교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사회의 다양화, 글로벌화를 보여주려고 대학 캠퍼스에 보기 좋게 여러 인종을 섞어놓는 생각은 좋다. 하지만 인종별 숫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이민자의 자녀로서, 또는 유학생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언젠가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또는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려는 아시아계 학생에게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미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싱글맘을 위한 희망나눔

변진섭 콘서트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2015년
1월15일
 목요일 오후8시

티켓

\$30, \$50,
 \$70, \$90,
 VIP\$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단체티켓 문의 환영

한양마트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om

뉴저지 버겐팩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크리스마스 & 새해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 2014년 12월31일까지



교차로에서 여섯장이상 구매시 **20%** 할인
 총구매금액의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풍자 만화의 아버지, 토마스 내스트 (Thomas Nast)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토마스 내스트 (Thomas Nast)라는 카툰리스트가 있었다. 일명 시사 풍자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내스트가 유명세를 탄 것은 부패한 정치인과 정치 스캔들을 고발했던 일련의 만화들 때문이었다. 내스트는 18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하퍼스 위클리 Harper's Weekly에서 만평 만화가로 활동을 했다. 이 시기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또 급속히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로, 정치인들과 기업인이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도급시대이기도 하다.

내스트에게 가장 유명세를 안겼던 사건은 일명 뉴욕시에 수백만 달러의 혈세를 낭비시킨 “트위드 링 (Tweed Ring)” 사건에 대한 일련의 만평이다. 윌리엄 트위드 (William M. Tweed)는 민주당 뉴욕시 지구당 조직인 태머니 홀 (Tammany Hall)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수많은 측근들을 계파로 거느리고 있었다. 트위드는 민주당의 지명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런 트위드가 1860년대 말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자, 트위드에게 줄을 대려는 기업들이 각종 서비스를 의뢰했다. 트위드는 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부를 축적했다. 이후 트위드는 태머니홀의 수장이 되었다. 이후 트위드는 거침없이 뉴욕시 예산을 횡령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문서를 위조한다든가, 공과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공사대금이나 물품 등을 과다 계상하고, 가짜 전표를 발행하는 식이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부는 측근인 친구들과 사이 좋게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낭비한 뉴욕시의 재정은 약 3,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 초대형 스캔들이었음엔 틀림 없다.

내스트가 트위드에 대한 풍자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867년경인데 1871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가령 “Who

Stole the People's Money” 라는 제목의 이 만화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엮이고 엮여 트위드에게로 그 부패가 향하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1871년 당시 트위드는 내스트에게 \$100,000에 달하는 금액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천문학적인 뇌물이다)을 제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카툰 그리기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스트는 이를 거절했다. 어쨌거나 내스트의 노력으로 이 사건은 매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당의 수장이었던 사무엘 틸든 등의 노력으로 1873년, 결국 트위드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내스트가 고발했던 것은 사실 트위드라는 부패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이른바 폴리틱얼 머신 (Political Machine) 혹은 머신 폴리틱스 (Machine Politics)의 문제이기도 했다. 내스트가 또 다른 만평들에서 고발하고 있다시피 19세기 머신폴리틱스는 탐욕에 눈먼 정치 보스들이 당내 계파를 장악하고 각 지역과 중앙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토마스 내스트 역시 인종 문제를 만평으로 그린 일이 몇 차례 있다. 반중 정서와 함께 중국인 이민 금지법 (Chinese Exclusion Act, 1882)이 통과할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내스트는 중국인들에 대해 “쥐를 먹는다” “저임금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과 같은 낙인을 찍는 미국인들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편이었다. 차라리 (내스트가 공화당 개혁파였던 탓인지) 중국인들에 대해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아이리

쉬계 미국인들의 편견을 고발했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내스트의 각종 만평은 그 자체로 선이거나 악, 정의이거나 불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통찰 덕에 의미가 있었다.

며칠 전 프랑스의 풍자주간지 (샤를리 엡도 (Charlie Hebdo)) 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격 테러는 샤를리 엡도가 쏟아낸 그간 쏟아낸 만평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문제의 그 만평들 중에는 정서상의 차이인지, 정치적인 차이인지 필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는 만평들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자극했다’ 싶은 만평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정치풍자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를 저지른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샤를리 엡도가 그간 이슬람 극단주의만 풍자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샤를리 엡도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간의 불화는 2006년 이 잡지가 “무하마드가 근본주의에 압도되어 울고 있다” 는 메세지와 함께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무하마드를 묘사한 만평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이번 테러로 인해 반-이슬람 인종주의가 더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 역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전체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극단적으로 일치시킨 비극 앞에서 “무하마드가 근본주의에 압도되어 울고 있다” 는 메세지는 오늘 더 크게 울린다.

만평 출처
<http://thomasnastcartoons.com>
http://arteducationdaily.blogspot.com/2011_08_01_archive.html
<https://mrjohnsonssclasses.wikispaces.com/Thomas+Nast+Cartoons>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o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E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4)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와 결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벤가드 회사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이유를 월 스트리트 신문 (WSJ, 8/21/2014)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떠나 객관적으로 참고할 좋은 기사라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 그대로 옮겨 봅니다. 제목은 영어로 "Investors pour into Vanguard. Eschewing stock pickers" 입니다.

뮤추얼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벤가드 회사의 대부분 투자종목은 인덱스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벤가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회사 총자

산이 무려 \$3 trillion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자의 귀재' 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도움도 한 몫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유언장을 발표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나이가 83이며 총자산이 \$66 billion입니다. 유언장 내용은 "자산의 10%는 단기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벤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S&P 500 인덱스 펀드는 미국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종목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벤가드 회사의 창업자인 존 보글의 의해서 1976년 처음 나왔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를 포함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많은 직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매우 저렴하

니다. 또한, 500회사인 대기업에 투자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분산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된 분산투자는 투자 위험성을 훨씬 적게 합니다.

투자자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에 더 투자합니다. 인덱스 펀드의 좋은 점을 하나씩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2013 한 해 만도 뮤추얼 펀드에는 \$53 billion을 투자했지만 인덱스 펀드(주식과 채권을 포함)에는 \$336 billion을 투자했습니다. 2014년도 8월까지 뮤추얼 펀드에는 \$74 billion을 투자했지만 인덱스 펀드에는 \$177 billion을 투자했다고 주식평가회사인 모닝스타에서 발표했습니다.

두 종목에는 경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은 1.3%이지만 벤가드 회사의 인덱스 펀드 투자비용은 평균 0.1%이므로 차이가 나는 1.2%를 더 세

브 할 수 있다고 모닝스타 회사가 언급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비용을 절약하면 그것이 수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 나누어 집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패시브 투자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에 올해 7월 말까지 \$128.4 billion이 투자가 되었지만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는 단 \$18 billion만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S&P 500 인

덱스 펀드의 올해 수익률(12/26)은 15%가 넘습니다. 이러한 수익률보다 더 높은 뮤추얼 펀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벤가드(Vanguard)회사를 이용하여 인덱스 펀드와 ETF에 투자한 지 25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고객의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월 스트리트 신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온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에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오바마케어와 세금(2)

0.9% additional Medicare tax / 3.8% Net Investment Income Tax

지난 주에는 '오바마케어(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와 관련된 세금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가 새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①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Earned Income에 과세되는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 (additional 0.9% Medicare Tax)' 과 ②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과세되는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3.8% Net Investment Income Tax)' 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등에 대한 0.9% 메디케어 세금 (Additional 0.9% Medicare Tax on Earned Income)

아시아시피 급여를 받으면 급여의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로 인해 2013년도 부터 고액 연봉자는 기본 메디케어 세금(1.45%)외에 추가로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Earned Income에만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금액인 \$200,000(부부합산신고자는 \$250,000, 부부별

도신고자는 \$125,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0.9%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김한국씨의 2014년도 Earned Income(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0,000이라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기준금액 \$250,000을 초과한 \$50,000(=\$300,000 - \$250,000)에 대해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세금 전체를 보면, 소득 중 기준금액 \$250,000까지는 2.9%(본인부담 1.45% + 회사부담 1.45%, self-employed 인 경우 본인부담 2.9%)를, 추가 \$50,000에 대해서는 3.8% (기본 2.9% + 추가 0.9%)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김한국씨의 2014년도 Earned Income이 \$200,000이라면 이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없습니다. 즉, \$200,000전액에 대해 기본 2.9%만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

오바마케어 시행전에는 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과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Earned Income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도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합니다.

3.8%의 세금은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임).

3.8% 세금계산은 아래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에 3.8%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투자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조정된소득금액(MAGI)에서 기준금액 \$200,000(부부합산신고자 및 미망인: \$250,000, 부부별도신고자: \$125,000)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김한국씨의 부동산임대소득(총임대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100,000이고 사업소득이 \$200,000이라면,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300,000(사업소득 \$20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50,000이므로,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50,000에 3.8%를 곱한 \$1,900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김한국씨의 사업소득이 \$300,000이라면,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400,000(사업소득 \$30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150,000이므로,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100,000에 3.8%를 곱한 \$3,800입니다.

한편, 위 김한국씨의 사업소득이 \$140,000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3.8%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240,000(사업소득 \$14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0 이므로,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은 0으로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은 0입니다.

위와 같이 보면,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 있다하여 항상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은 순투자소득의 유무와 순투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조기지원에서 입학연기된 지원자들이 정규지원에서 합격하는 방법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올해 (2015-2016년도)는 얼리 지원자들 중 입학보류와 거절된 학생들이 유독 많은 해였다. 특히 학교별 특색이 많이 들어간 입학 결정으로 당분간 학생들이 어떠한 준비와 진학 희망 대학에 맞춰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지 답을 주기보다는 큰 숙제를 준 해였다. 물론 정규 지원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을지 추측하기에는 이르지만 얼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 될거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하바드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약 1300명이 더 많이 조기지원을 했지만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적어 정규지원에서 심한 경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유 있는 학교 재정과 지난 몇 년간 다양성과 전문 분야 양성을 고려한 대학들이 많아 조기 합격자들 중 상당수가 무형의 요소 (intangible factors)에 포함된 학생들이 많았다. 무형의 요소로는 학점은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평범 하면서 지역적 그리고 학교별 다양성 (Geographic and school diversity), 사회 경제적 인, 그리고 도전적인 다양성 (Socioeconomic and ethnic diversity), 졸업생, 교직원, 그리고 특별한 흥미 케이스 (Alumni, faculty, and special interest cases), 대학 졸업 후 삶과 미래 예측 (The future test and life after college), 감동적인 케이스 (Heartstrings cases)

등의 학생들이 조기지원에서 많은 혜택을 본 해이다.

반면 우수한 학교성과 SAT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거절 통보를 많이 받았다. 이 경우는 학생이 학교와 잘 맞지 않는 학교를 지원했거나 성적만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거절되었다. 올해의 경우 적어도 거절이 안되고 보류된 학생들이 정규에서 입학 허가될 확률은 지난 몇 년 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입학이 보류되어 정규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을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입학 보류된 학교에 가능하면 빨리 보류된 상태이지만 정규에서 합격된다면 반드시 최종 등록할 학교란 점을 알리는 편지를 쓴다. 편지는 간결하면서 왜 이 학교가 자신에게 있어서 첫번째 선택한 학교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빨리 보내는 게 좋다. 그만큼 내가 간절히 다니고 싶은 대학이란 점을 알리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에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학생의 성향을 보류된 학교에 가장 잘 맞게 써줄 수 있는 선생님께 추가 추천서를 요청한다. 단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엑스트라 추천서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추가 추천서가 정규 지원에서 입학 가능성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추천서는 학생

과 한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기존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들과 다른 형태로 접근한, 특정 학교만을 위해 쓰여진 추천서가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지난 몇년간 우리 고등학교 출신으로 해당 학교에 입학 허가된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이다". 또는 "기준에 입학 허가 된 많은 우수한 학생들보다 훨씬 해당 학교에서 재미있게 생활할 학생이다" 등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셋째, 입학이 보류된 이유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학점, SAT성적, 에세이, 추천서, 리더십, 경시 대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12학년 때 최선을 다해 보강하도록 하자. 특히 12학년 학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최고 점수를 받도록 하자. 동시에 각 과목별 선생님의 평가서를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점과 선생님들의 평가서가 모두 좋다면 그 평가서와 12학년 성적을 대학에 업데이트 하면 가장 좋은 추천서와 자료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SAT성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1월에 다시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자.

넷째, 다양한 경시 대회들에 꾸준히 참여하여 입학 하도록 한다. 12학년 때에도 음악, 미술, 에세이, 수학, 과학, 디베이트, 스포츠, 외국어,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경시대회에 활발히 참여한다. 이런 경시 대회 입상결과를

정규 지원 하는 대학에 업데이트 시키면 입학 확률을 높일뿐만 아니라 입학보류된 학교들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게 할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교외 활동을 통한 리더십 확보 또는 공헌. 대부분 시니어들이 불학기부터 기존 활동을 중단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꾸준히 학교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또는 멤버로서 최선을 다해 공헌한다는 점을 알리면 좋다. 가능하면 칼리지 카운셀러가 이런 점을 자신의 학교를 담당하는 입학 담당 관련자에게 알리는 게 공신력과 신뢰성에서 좋다. 이런점에서 칼리지 카운셀러와의 유대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여섯째, 3월 초에 그동안 업데이트된 내용들 모두와 섬머 계획을 포함하여 정갈하고 싶다는 편지를 한번 더 쓰는게 좋다. 이 편지는 칼리지 카운셀러를 통해 확인하고 보내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것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참고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보류는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에 충분히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번째 응급조치가 제일 중요하고 (편지 쓰기), 그 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새로운 SAT & PSAT

새로운 SAT가 2016년 봄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은 미국 유학 동향을 눈여겨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4년 3월 7일자 칼럼 "SAT: 또 확-바뀐다!" 참조) 2015-2016년 시즌에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현재의 10학년들은 현행 SAT와 새로운 SAT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의 SAT가 더 익숙하고 그 동안 이에 맞춰 준비를 해왔다면 앞으로 14개월 안에, 즉 2016년 3월 전까지 SAT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SAT가 적용되는 11학년 3월부터 많은 대학교들의 원서 마감 날짜인 2017년 1월 1일 사이에 새로운 SAT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약 10년 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현재의 시스템 덕분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참고서 및 약 10년 치의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준비

2015년 변화하는 대입 준비 (1)

비를 시작할 수 있는 현행 SAT와는 달리 새로운 SAT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SAT를 주관하는 CollegeBoard에서조차 새로 바뀌는 section에 맞춰진 연습문제 몇 문제 정도만 제공하고 있고, 시간을 재서 연습할 수 있는 Full practice test는 올해 3월이나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 유형과 시험 형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full practice test가 공개되면 SAT 참고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 (Kaplan, Princeton Review, Barron's 등)은 아마 앞다투어 새로운 형식의 SAT가 담긴 참고서인 연습 문제집을 발행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SAT가 적용되는 1세대인 10학년들에게 과거 기출문제란 존재하지 않고, SAT를 주관하는 CollegeBoard 및 여러 출판사에서 발표한 참고서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 바뀌는 SAT의 요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문제의 의도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점수가 크게 차이 날 것이다. 새로 바뀌는 SAT에 맞춰 PSAT 또한 함께 바뀐다. 새로운 PSAT는 2015년 10월에 시행되며, 새로운 SAT를 처음 보게 될 현재의 10학년들이 11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바로 응시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올 10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PSAT는 상대적으로 준비 자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Advanced Placement

십 수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시험 형식을

바꾸는 SAT와는 달리 AP는 그 시험과 교육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왔다. 특히 AP 과정 및 시험은 37개나 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의 변화 (Biology, Chemistry, etc), AP 시험에 대한 예산 배정 문제 (French Literature, Computer Science AB, etc) 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 특히 이번 2015년 5월에 AP US History와 AP Physics 1/2 시험을 볼 학생들은 이미 바뀐 교육 과정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바뀐 APUSH 교과 과정에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사건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 점을 물어보는 등 역사의 인과 관계에 더 중점을 맞췄다. 예년의 1년 과정이던 AP Physics B를 반으로 나눠 각각 1년의 교육 과정으로 재탄생 시킨 Physics 1/2에서는 기초 물리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시험한다. 특히 학생이 직접 이론을 세우고 해당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해야 하는 등 과학 개념에 대한 탐구 정신이 중요시 된다. 하지만 커리큘럼과 시험 형식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평균 시험 점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재작년에 바뀐 AP Biology와 작년에 바뀐 AP Chemistry 시험에서도 최고 점인 5점을 받은 학생들이 각각 19.4% 에서 5.5%로, 그리고 18.9%에서 10.1%로 떨어졌다. 역시 문제는 새로 바뀌는 시험 형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월 31일자 칼럼 "AP 시험의 진화" 참조) Advanced Placement 과정 및 시험은 계속 진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Art History와 European History의 교과 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그 후년에는 Calculus AB/BC와 World History의 시험 형식이 바뀐다. 새로 개설되는 과정도 있다. 올해 신설된 AP Capstone program은 학생들은 단일 과목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 필수인 혁신 (innovation), 환경 유지 (sustainability), 기술 개발 (technology)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팀을 이뤄, 또 독립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Capstone program의 첫 과정인 AP Seminar 과정은 현재 매사추세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 Deerfield Academy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13개 학교에서만 운영 중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